

2012

연구보고서

11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영옥 · 황수경 ·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 영 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황 수 경 (KDI 연구위원)

강 민 정 (본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그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중에서 실업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여성 실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제까지 여성실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데에는 남성실업률에 비해 여성실업률이 2%p 이상 낮다는 사실도 한 몫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실업률 감소’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 증진’이라는 목표가 심심치 않게 부상하고 있다. 즉 실업자를 줄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수 대비 취업자수인 고용률의 제고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일찍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인구비중을 경제의 비활동성(inactiv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추이 속에서 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성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의 실업정책의 틀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활성화 전략(labor force activation)의 대상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구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구직자, 즉 실업자에 맞춰져 있고 많은 여성인력은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기존의 공식실업률을 넘어 실망실업자, 불완전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도록 실업률 지표를 확장함으로써 여성 과 소활동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쉽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느라 애쓴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결과가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실업대책의 외연을 넓혀 잠재인력의 고용 증가를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비활동성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식실업률 지표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망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는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하고, 이 새 지표로 여성실업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 2.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현단계 논의들

- 과소고용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정의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여 종종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놓고 실업자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력 과소활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공식실업자뿐 아니라 과소취업자(고용과 실업의 경계에 위치하는) 및 실망실업자 또는 잠재실업자(실업과 비경활의 경계에 위치하는)를 포함한 개념으로 분석할 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확장된 과소활용률 지표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실업률과 새 지표인 과소고용률 간 격차가 여성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측정치에서는 인력활용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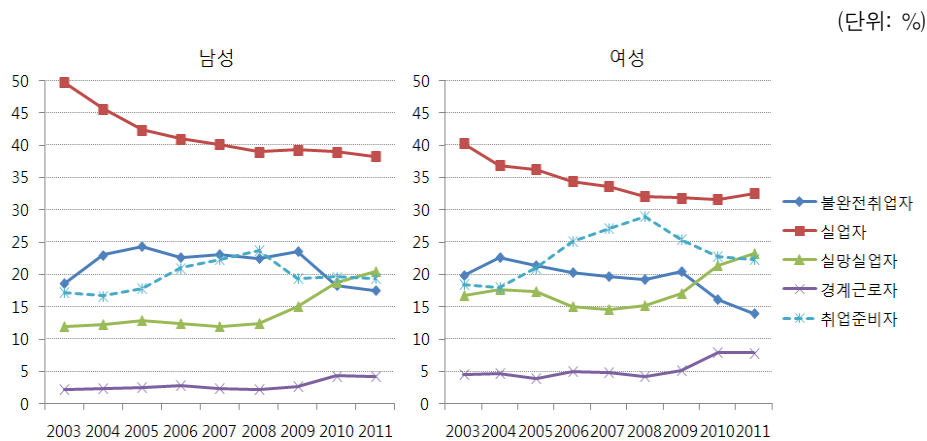
〈표〉 노동력 과소활용의 요소 (ILO)

요소	정의	시사점
시간측면의 과소고용 (a)	일할 의사와 할 수 있음에도 일정 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	근로시간의 관점에서 고용인구의 생산역량을 과소 활용
저임금 일자리 (b)	최저임금 이하의 전일제 근로자, 낮은 시간당 임금의 비전일제 근로자, 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불충분한 임금
숙련이 저활용되는 근로자 (c)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숙련직에서 일하는 근로자	교육훈련투자수익률의 낭비
실망실업자 (d)	지난 6개월간 구직한 적 있으나 구직실패 경험으로 실망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
일할 수 있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e)	실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구직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구직방법을 몰라서 등)
노동력 과소활용	실업자 + a + b + c + d + e	노동력 수요·공급간 불충분한 교환의 정도

- 우리나라의 실업 관련 연구에서는 공식실업률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또한 늘 최저수준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3.5%와 같이 최저수준이라면 고용률은 최고가 될 법한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로 OECD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6.8%)도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2012)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률을 넘어 여성 잠재인력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 3.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다. 경제위기 시점에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다지 큰 폭은 아니었다. 또한 구직 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이에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에 취업준비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여성실업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 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포괄하는 취업애로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망실업자, 경제근로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실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취업애로층의 구성과 변화추이

-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유사실업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 실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이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상황이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력단절기 여성의 질 낮은 고용상태와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성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취업준비자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취업준비자와 실망실업자는 기존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 각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유사실업(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유사실업집단별 성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 첫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일수록 확률이 높아졌고 이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직이나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연령효과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0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확률이 높아졌다. 불완전취업자 결정요인에서 가장 큰 남녀의 차이는 학력의 효과인데, 여성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일수록 불



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 이와 같이 유사실업의 형태별로 다른 결정요인을 갖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공통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사실업일 확률이 높아졌으며, 학력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4. 유사실업을 지표로 분석한 실업 동향

- 여성의 공식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는데 이것에 대해 여성 고용상황이 남성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성별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차이는 상당부분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공식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사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성별 실업 동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공식실업률 수준은 지난 9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사실업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유사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유형의 유사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 이에 취업-실업-비경활의 노동력상태 구분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력상태를 다양한 유사실업자 범주를 포함하는 세부 유형으로 정의하여 유사실업자의 성별 특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반응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 각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 변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가율이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참가율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참가율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의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실업률 변동이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노동력을 가정한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의 상당부분이

실업과 잠재실업의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취업-실업-비경활로 구분하는 통상의 노동력상태 범주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과 실업에서 경기변동성이 관찰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실업의 경기변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경활에서 경기와 역행하는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주로 발생하지만 여성에서는 취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노동력상태 세부 유형별로 경기변동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완전취업과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외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순수비경활 등은 경기변동에 역행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실업과 취업준비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여성의 경기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상태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40대 여성의 취업준비자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준비자와 달리 경기와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부가노동자 효과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5. 여성의 실업 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 노동패널자료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에 취업자이었던 여성은 2008년에 취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2007년에 실업상태에 있던 여성은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즉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해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다음으로 노동패널자료의 2005년~2008년까지 직업력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non employment spell)를 모아서 미취업 탈출률(hazard rate)을 추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직장의 특성 등이 탈

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Co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형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미취업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 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본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과 미취업으로 이원화한 상태이행 분석결과이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경로로의 탈출 가능성(competing risks)을 추정한 결과가 가져올 섬세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미취업 상태를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눌 수 없어, 본고가 알고자 하는 여성의 실업탈출 행태분석을 엄밀하게 하지 못한 것도 본 분석의 한계이다.

- 그렇지만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또한 이어진 동태분석을 통해 여성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므로 남성 근로자를 표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력 활성화 정책과 실업정책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제약요인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6. 정책시사점

-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여성 잠재실업자를 포괄 하도록 실업정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수행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직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실망실업자화 됨으로써 아예 실업대책의 대상집단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활동성 함정을 겨냥한 정책보다는 여성과 같은 경계실업자군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여 구직활동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직업알선서비스의 전달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에게 실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공급 특성 중 하나가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직 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실업(공식 구직활동)의 단계 없이 곧장 취업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낮은 것을 반영하

는데,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이유는 아마도 실업의 가치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이 실직 시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실업자 지원 서비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식부문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의 실업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공식실업률의 보조지표로서 새 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실업률은 원래 노동공급의 과소활용(*underutilized labour supply*)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취업희망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실업률이 과소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률에 대한 표준 정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별도의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실업자집단을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제안한 ‘유사실업률’ 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돕고 적절한 정책설계를 건언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성장 시대에 실업이 상시화 및 구조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실업대책의 질을 높이는 정책인프라로서 실업정보의 제공이 기대된다.

## 주요 목 차

I. 서론 (김영옥)	1
II.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논의 (김영옥)	7
III.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강민정·황수경)	35
IV. 성별 유사실업과 경기변동성 (황수경)	87
V. 여성의 실업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김영옥)	107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김영옥)	129

# 목 차

I. 서 론 .....	1
II.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논의 .....	7
1. 실업률 지표 .....	9
가. 실업의 발생원인과 정의 .....	9
나. 실업률 측정하기 .....	13
2. 세계의 성별 실업률 격차 .....	18
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	21
4.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를 둘러싼 논의 .....	25
가. 실업률 지표에 따른 실업자 규모 .....	25
나. 공식실업률의 문제점 .....	29
다. 대안실업률의 개발 필요성 .....	32
III.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	35
1. 공식 실업률 추이와 특성 .....	37
가. 인구학적 특성 .....	39
나. 구직 특성 .....	45
다. 실업기간별 특성 .....	49
2. 공식 실업률과 유사실업률 .....	52
가. 유사실업에 대한 논의 .....	52
나.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	54
다.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	59
라.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	62

3. 유사실업률로 본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	64
가. 유사실업자 유형별 규모와 변화 추이 .....	65
나. 여성 유사실업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	66
다. 여성 유사실업자의 노동력상태별 일자리 특성 .....	70
라. 성별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 .....	76
4. 소결 .....	82
<b>IV. 성별 유사실업과 경기변동성 .....</b>	<b>87</b>
1. 분석의 목적 .....	89
2. 실업 및 유사실업의 동학 .....	91
3.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	92
가. 경기변동과 고용지표의 변동 추이 .....	92
나. 실업 및 잠재실업의 경기변동 민감성 .....	96
다.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분석 .....	100
4. 소결 .....	105
<b>V. 여성의 실업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b>	<b>107</b>
1. 선행연구 .....	109
2. 자료구축 및 분석모형 .....	113
가. 자료구축 .....	113
나. 기술통계 .....	114
다. 분석모형 .....	116
3. 실업탈출과정 .....	118
4. 미취업기간 분석 .....	123
5. 소결 .....	127
<b>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b>	<b>129</b>

■ 참고문헌 .....	143
■ 부    록 .....	147
■ Abstract .....	153



## 표 목 차

<표 II-1>	경제활동상태의 분류 .....	12
<표 II-2>	노동력 과소활용의 요소 .....	15
<표 II-3>	7개국에서의 노동력 과소활용 대 실업률 .....	16
<표 II-4>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의 성별 실업률(1999~2009) .....	18
<표 II-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번 문항의 응답치 분포 .....	29
<표 III-1>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	39
<표 III-2>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	41
<표 III-3>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자수 추이 .....	43
<표 III-4>	남녀 실업자의 혼인상태 추이 .....	44
<표 III-5>	남녀 실업자의 구직기간 추이 .....	46
<표 III-6-1>	남녀 실업자의 구직방법 추이(2000~2007) .....	47
<표 III-6-2>	남녀 실업자의 구직방법 추이(2008~2011) .....	48
<표 III-7>	남녀 실업자의 구직경로 추이(2008~2011) .....	49
<표 III-8>	남녀 실업자의 전직 시기 추이 .....	50
<표 III-9>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실업자의 특성(2011년) .....	51
<표 III-10>	미국 BLS 유사실업률의 통계적 정의 .....	55
<표 III-11>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추이 .....	56
<표 III-12>	우리나라 유사실업의 유형과 개념 .....	60
<표 III-13>	노동력상태의 확장 및 유사실업자의 규모 .....	61
<표 III-14>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	63
<표 III-15>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산업 특성(2011년) .....	71
<표 III-16>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직종 특성(2011년) .....	73
<표 III-17>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사업체 규모(2011년) .....	74
<표 III-18>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종사상 지위 특성(2011년) .....	75
<표 III-19>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된 변수 .....	77
<표 III-20>	성별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	80

<표 IV-1> 인구계층별 고용지표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	98
<표 IV-2> 고용률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인구계층별 기여도 .....	100
<표 IV-3> 성별 회귀분석 결과 .....	102
<표 IV-4> 성,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의 요약 .....	103
<표 V-1> 2007년 조사당시 성별, 경제활동별 인구배경 분포 .....	115
<표 V-2> 2007년 미취업자의 2008년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	119
<표 V-3> 2007년 취업자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	120
<표 V-4> 2007년 실업자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	121
<표 V-5> 2007년 비경제활동인구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	122
<표 V-6> 분석에 포함된 미취업 스펙의 개요 .....	124
<표 V-7> 실업 탈출률 결정요인 추정 결과(Cox 모형) .....	126

## 그 림 목 차

[그림 I-1]	2000년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	4
[그림 II-1]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노동력 상태(2009) .....	14
[그림 II-2]	경제위기와 실업인구 및 실업률(2007~2009) .....	22
[그림 II-3]	월별 실업률의 성별 격차(2008.1~2009.11) .....	23
[그림 II-4]	2011년 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구성 .....	26
[그림 II-5]	2011년 (신)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구성 .....	29
[그림 II-6]	실업률(15-64세, 2011년) .....	30
[그림 II-7]	청년 실업률(15-29세, 2011년) .....	31
[그림 II-8]	장기실업자 비중(6개월 이상, 2011년) .....	31
[그림 II-9]	실업자수 증가율('08~'09년) .....	31
[그림 II-10]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	33
[그림 III-1]	성별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	38
[그림 III-2]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비교 .....	40
[그림 III-3]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비교 .....	42
[그림 III-4]	남녀 실업자의 가구주 비중 추이 .....	45
[그림 III-5]	노동력상태의 구성 .....	52
[그림 III-6]	연령대별 여성의 유사실업 비교 .....	58
[그림 III-7]	연령대별 남성의 유사실업 비교 .....	58
[그림 III-8]	취업애로층의 구성과 변화 추이 .....	65
[그림 III-9]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03년) .....	66
[그림 III-10]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11년) .....	67
[그림 III-11]	남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층의 구성(2011년) .....	68
[그림 III-12]	여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층의 구성(2011년) .....	69
[그림 III-13]	연령×학력수준별 취업애로층의 구성(2011년) .....	70
[그림 IV-1]	실업률 변동의 성별 비교 .....	90
[그림 IV-2]	경기변동과 고용지표의 변동 추이 .....	93

[그림 IV-3] 경기변동과 세부 노동력상태별 인구의 변화 추이(남성) .....	94
[그림 IV-4] 경기변동과 세부 노동력상태별 인구의 변화 추이(여성) .....	94
[그림 V-1] 분석대상이 되는 미취업 스펙 .....	114
[그림 V-2] 미취업기간 탈출률 .....	124
[그림 V-3] 남성과 여성의 미취업기간 탈출률 .....	125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실업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집약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와 실업구조와 실업률 추세변화 등 실업연구가 이루어졌고(어수봉 1994, 남재량 1997)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이후 경기침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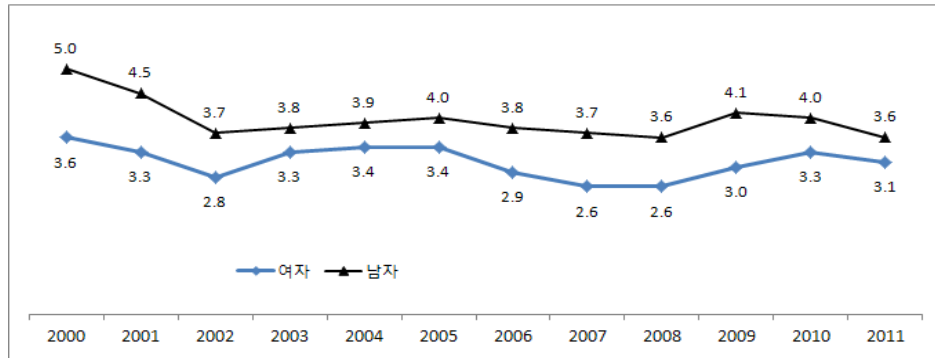
이에 사회 안정을 목표로 실업에 대한 정책대응이 부산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의 대학 진학을 급증에 따른 대량의 대졸 실업자들이 발생하면서 고학력 청년 실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또한 정책수립에 충분한 정도는 아니었다. 요컨대 IMF 금융위기 이후 실업연구가 활발해졌지만 거시적인 실업률 추이로부터 미시적인 구직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고르게 또 깊게 연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조차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 저하와 더불어 실업연구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실업연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실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제까지 여성실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데에는 남성실업률에 비해 여성실업률이 2%p 이상 낮다는 사실도 한 몫을 했다. 2000년 이후 실업률 추이를 보면 <그림 I-1>과 같이 여성의 경우 경기 변동에 좀 더 민감하지만 남성 실업률보다는 낮은 추세를 유지한다. 이것은 외국과 비교하여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실업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sup>1)</sup>

---

1)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서술되고 있음.

#### 4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출처: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1] 2000년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종전까지 노동력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은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에 한정되어 왔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실업률 감소’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와 함께 ‘경제활동참가 증진’이라는 목표가 심심치 않게 부상하고 있다. 즉 실업자를 줄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수 대비 취업자수인 고용률의 제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OECD의 *Employment Outlook*(2003)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인구비중을 경제의 비활동성(inactiv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생산인력의 부족,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종은 OECD의 「2012 한국 경제보고서」(2012.4)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략보고서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만으로는 여성인력 활용에서의 비효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여성 실업률은 3%대인데 이것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인력활용 수준이 완전고용상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체감실업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겨우 50%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대일(2000:1-2)도 우리나라 실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업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성이 매우 높은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실업대책 등 제반 노동시장 정책을 입안하는데 노동시장 참여자의 특성 및 성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채 실업률만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고령화가 가져 올 생산가능인력의 감소에 대응하여 잠재인력의 충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로부터 고용증가정책이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과의 괴리로부터 경제 내 인력활용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 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sup>2)</sup>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의 괴리를 제거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실업률 수준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경기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도 부실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성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의 실업정책의 틀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업대책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활성화전략(labor force activation)의 대상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구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구직자, 즉 실업자에 맞춰져 있고 많은 여성인력은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기존의 공식실업률 지표는 여성 실업률 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

2)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다지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체감하는 고용사정과 실업률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인 실업률이 왜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현재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공식실업률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취업희망여부 등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하는데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6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에 실망실업자, 불완전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도록 실업률 지표를 확장함으로써 여성 과소활용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여성 실업구조의 변화를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함으로써 잠재인력의 고용 증가를 구현해 내는데 시급히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실업률 지표와 추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결과를 담는다. 먼저 ILO 통계와 연구물을 사용하여 세계의 여성 실업률 추이와 특성을 살펴본 후,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탐색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와 실업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제3장은 공식실업률과 대안적 실업률을 활용하여 성별 실업률 추이와 실업자 특성을 파악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기본 분석자료로 하여 공식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여성 실업률의 추이를 분석한다. 공식실업률로는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동시장을 진출·입하는 여성의 이행행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소활용 지표로서 유사실업률 지표를 제안한 후, 유사실업률로 본 여성실업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유사실업의 결정요인을 분석 및 비교한다.

제4장은 거시지표로서 실업률의 주요 기능인 경기변동성을 고찰한다. 실업 및 유사실업의 동학에 대해 논의한 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유사실업자의 다양한 유형별 경기변동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은 노동시장 상태이행에 대한 동태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가용한 노동패널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과 2009년 간의 실업탈출과정 등 노동력 상태 전환률 및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다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즉 2005년~2008년까지 4년간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서 미취업 기간(non employment spell)을 추출하여 취업으로의 탈출률(hazard rate)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의 정리와 함께 실업정책 및 고용증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논의

1. 실업률 지표	9
2. 세계의 성별 실업률 격차	18
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21
4.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를 둘러싼 논의	25

여기서는 실업률 지표와 추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결과를 담는다. 먼저 ILO 통계와 연구물을 사용하여 세계의 여성 실업률 추이와 특성을 살펴본 후,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탐색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와 실업연구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 1. 실업률 지표

### 가. 실업의 발생원인과 정의

실업의 발생원인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과 비 수요부족 실업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총수요 부족이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해고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이다. 비 수요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과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직업탐색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실업과 빈 일자리가 공존한다. 마찰적 실업이란 취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또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이다. 정보가 불완전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고전학파의 세계에서처럼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마찰적 실업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지닌다.

구조적 실업은 필요한 기술수준을 갖춘 노동자가 없거나 지역간 이동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기술의 불일치(skill mismatch)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한다. 이처럼 구조적 실업은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 사례는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산업의 근로자, 비숙련공 등의 실업이며 비자발적 실업이다. 노동의 이동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은 이동성이 부족(immobility)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신발제조 기술자가 신발공장에서 해고된 후 전자회사에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양산업에서 배출된 실업자가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노동력 수요가 계절별로 편차가 커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은 다른 실업과 달리, 실업의 발생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업의 유형을 현장에서 구분해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실업유형에 따라 정부의 실업정책이 달라지는 등 정책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실업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완전고용 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자연실업률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얻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이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자동화나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합쳐서 자연실업률을 산출한다. 자연실업률은 각 국가의 연령, 성, 교육수준 등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황종률(2007)은 2007년 현재 한국의 자연실업률이 3.6% 수준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업을 어떻게 정의하나? 일반적으로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실업자 정의를 보면 매우 엄격하게 정의되고 있다. 즉 실업이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상태에 있다고 하며, 일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실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1982년 채택된 ILO 기준에 근거하여 실업을 정의하고 있다. ILO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직업은 없으나(without work),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자로 정의된다.

이처럼 실업의 각 요건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실제로 통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강순희 외, 1999:2). 먼저 “취업의사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ILO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취업의사 여부를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경우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의 비용이 높은 경우 취업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념상 그리고 실제상으로는 실업자이나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어떤 상태를 실업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불완전 취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더 복잡해진다. 노동력 과소활용(underemployment)을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률인데, 사실 위의 실업률 정의는 과소활용상태를 가장 좁게 규정한 것이다. ILO는 제13차 ICLS(1982)와 제16차 ICLS(1998)에서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 측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노동력 과소활동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3)</sup> ILO 기준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이란 근로기간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어떤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위하여, 혹은 자신이 소유한 기술의 충분한 활용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고 또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완전하게 취업된 것으로 간주한다. <표 II-1>과 같이 취업자와 불완전 취업

3) 제13차 ICLS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이고 제16차 ICLS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임.

자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지만, 불완전취업자는 다른 일을 할 의향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편 실망 노동자(discouraged workers)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실업자이지만 실업의 정의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표 II-1〉 경제활동상태의 분류

	취업	불완전취업	실업	비경활
일을 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음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일할 의향이 있음	-	예	예	아니오
일을 할 수 있음	-	예	예	아니오

출처: ICLS(1998),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Oct. p.10.

또한 장기실업률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실업기간이 6개월 혹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이 기준은 시기와 국가별로 자의적이다. 과거 실업률이 높지 않았을 때에는 장기실업의 기준을 연속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실업자로 규정하다가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이 정착되면서 그 기준을 12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장기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신동균, 1999).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실업은 남성집단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직업 탐색을 포기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일하지 않지만 취업이 가능한 그러나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가용하다면 즉 ILO(2010:25)의 표현방식을 따라 구직요건을 완화하여 실업자를 넓게 포괄할 때의 실업률 자료("relaxed" 실업률)가 가용하다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직업탐색을 포기한다는 가설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높은 유보임금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실증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면,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보조적인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부가노동자효과와 일자리를 발견할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근로자들이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실망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반된 영향을 끼치는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는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추정결과에 따른다. 그러나 통상 실망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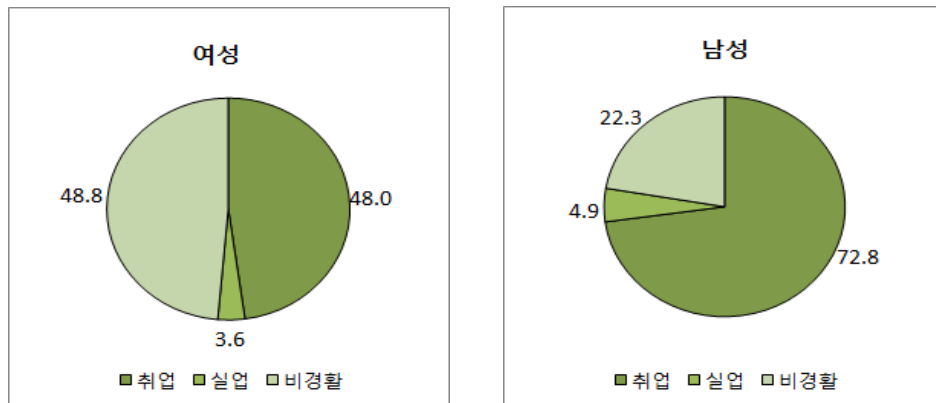
그런데 이 負의 상관관계는 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라 방향이나 크기가 차이를 수 있다고 지적된다(Cain, 1967). 불경기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 근로자집단은 노동시장 내부에 머무는 성향이 강한데 비해 노동시장의 정착도가 낮은 집단은 쉽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집단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응이 좀 더 빠르다. 따라서 집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가 다를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런 예측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2002년까지 추이를 보면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여성노동력 행태의 결과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윤희숙, 2004:360).

## 나. 실업률 측정하기

개인이 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통상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상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분류기준이 우수하다면 세 범주가 상호배제적이고 실제로 식별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범주의 어떤 범주는 너무 넓고 또 어떤 범주는 너무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II-1>의 ILO 통계를 보면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남성의 72.8%가 취업자이고 22.3%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4.9%가 실업자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인구는 취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나뉘고 3.6%만이 실업인구로 나타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식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존의 실업률 지표는 노동력 과소활용(Labour underutilization) 상태를 과소반영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ILO는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예로 공공 혹은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등록, 입사 지원, 사업장이나 농장 등 방문, 신문광고 게재 혹은 문의, 친구나 친척 등에 도움 요청, 창업을 위한 토지 등 물색, 자금원 물색, 자격증 취득 준비 등

을” 제시하고 있다(박기현, 2012:6에서 재인용).



출처: ILO(2009), *Trends Econometric Models*, 2009 November

[그림 II-1]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노동력 상태(2009)

이러한 문제로부터 부가적인 실업률 지표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정의가 노동력 활용의 수준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업’은 한 주에 한 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비공식부문, 무급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할 정도로 너무 넓은 반면, ‘실업’은 일하지 않지만 일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너무 좁게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기준 적용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실업통계를 ILO(2010:25)는 “relaxed” 실업 통계라 칭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경제학계는 노동력 활용의 “희색 부분”인 과소활용을 정의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5년마다 열리는 국제통계전문가회의(ICLS)의 권고사항을 따라 ILO는 “과소활용소위(working group on labour underutilization)”를 통해 시간 측면의 과소고용, 저임고용, 하향취업과 같이 숙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고용 및 실망노동자(비경제활동상태) 등 5가지 유형을 <표 II-2>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또한 ILO(2010:25)는 이 표의 유형에 따라 과소고용을 추계해 보았고, 그 결과는 실업이 과소활용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노동력 과소활용 정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비자발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시간측면에서의 과소고용(Time-related underemployment)”을 사용할 수 있다(ILO, 2010:29-30). 이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55개국 중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은 압도적으로 시간측면의 과소고용인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소고용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정의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종종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놓고 실업자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고용되어 있지만 활발하게 다른 직업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잠재인력의 과소활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실업자에 과소고용자를 더한 비중으로 산출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과소고용의 측정치는 <표 II-2>의 다양한 유형을 참고할 수 있다.

〈표 II-2〉 노동력 과소활용의 요소

요소	정의	시사점
시간측면의 과소고용 (a)	일할 의사와 할 수 있음에도 일정 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	근로시간의 관점에서 고용인구의 생산역량을 과소 활용
저임금 일자리 (b)	최저임금 이하의 전일제 근로자, 낮은 시간당 임금의 비전일제 근로자, 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불충분한 임금
숙련이 저활용되는 근로자 (c)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숙련직에서 일하는 근로자	교육훈련투자수익률의 낭비
실망실업자 (d)	지난 6개월간 구직한 적 있으나 구직실패 경험으로 실망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
일할 수 있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e)	실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구직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구직방법을 몰라서 등)
노동력 과소활용	실업자 + a + b + c + d + e	노동력 수요공급간 불충분한 교환의 정도

출처: ILO(2008), *Beyond Unemployment: Measurement of Other Forms of Labour Underutilization*, December

과소고용을 분리해 내지 않고 완전고용으로 간주하게 되면 노동력의 과소활용을 과소평가하는 한편, 고용증가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만약 고용증가가 과소고용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체로 여성들이 이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체고용량 그리고 여성고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과소활용률 지표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의 과소활용률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 ILO(2008)의 시범분석에서 강하게 지지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전통적인 실업률과 과소고용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실업률만으로도 여성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과소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새로운 측정치에서는 인력활용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표 II-3>).

〈표 II-3〉 7개국에서의 노동력 과소활용 대 실업률

나라	시기	성별	실업률(%)	노동력의 과소활용(%)	차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6	남성	29.8	51.5	21.7
		여성	35.8	62.7	26.9
멕시코	2007/Q2	남성	3.2	28.4	25.2
		여성	3.7	33.1	29.4
몰도바공화국	2007	남성	6.3	48.5	42.2
		여성	3.9	44.2	40.3
파나마	2007/08	남성	4.4	42.2	37.8
		여성	7.8	50.0	42.2
필리핀	2003/Q4	남성	5.6	36.1	30.5
		여성	6.0	48.2	42.2
탄자니아	2005/2006	남성	2.2	48.2	46.0
		여성	4.5	56.2	51.7
터키	2007	남성	9.8	27.4	17.6
		여성	10.2	36.3	26.1

출처: ILO(2008), *Beyond Unemployment: Measurement of Other Forms of Labour Underutilization*, December

종종 우리가 실업자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일자리를 잃은 누군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실직을 통해서만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직하는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job losers)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job leavers), 그리고 노동시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reentrants),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entrants)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가? 가장 확실한 경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남으로써 실업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즉 진학이나 자녀돌보기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발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유로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이지만 일부 실업자들은 몇 달동안의 구직이 성공적이지 못해 (실망하여) 구직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직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망실업자로서 노동력(labor force)에 포함되지 않고, 실업분석이나 실업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실업률은 사람들의 유급노동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과소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은 노동력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을 원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고, 지금은 일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지난 기간에 구직을 한 적이 있다면,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그들을 “노동시장에 약하게 연결된 노동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라고 부른다.<sup>4)</sup> 만일 그들이 구직을 중단한 이유가 그들 자신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실망실업자로 불리어진다. 그들은 이미 차별을 경험했거나 여러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소지한 기술이 현재 일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낙담했을 수 있다.

---

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http://data.bls.gov/cgi-bin/print.pl/lau/stalt.htm>

## 2. 세계의 성별 실업률 격차

전술한 바와 같이 실업률은 노동공급의 과소활용(underutilized labour supply)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고,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과를 반영한다. 실업률에 대한 표준 정의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집계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ILO가 집계한 실업률 통계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남성의 실업률이 6.3%인 것과 비교하여 여성 실업률은 7.0%였다(<표 II-4>).

〈표 II-4〉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의 성별 실업률(1999~2009)

(단위: %)

	실업률											
	전체 여성			전체남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		
	1999	2008	2009	1999	2008	2009	1999	2008	2009	1999	2008	2009
전 세계	6.8	6.1	7.0	6.2	5.6	6.3	12.9	12.4	13.6	12.5	11.9	13.2
선진국·EU	7.6	6.1	8.6	6.6	6.0	8.2	13.8	12.2	15.6	14.1	13.8	19.5
동남·중앙유럽(EU 제외)	12.8	8.1	9.8	12.1	8.3	10.6	24.1	17.8	21.2	21.7	16.5	21.7
동아시아	3.9	3.6	3.7	5.3	4.9	5.0	7.7	7.3	7.5	10.6	10.1	10.4
동남아시아·태평양연안	5.1	5.5	5.9	5.1	5.2	5.5	13.4	15.2	16.1	12.9	13.9	14.7
남부아시아	4.6	5.6	5.9	4.2	4.5	4.8	10.2	10.7	11.4	9.7	9.5	10.4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안	10.8	8.8	10.1	7.1	5.8	6.9	19.8	18.3	21.0	13.0	11.7	13.5
중동아시아	14.4	14.7	15.0	7.9	7.5	7.7	26.7	29.3	30.1	18.3	18.6	19.2
북부아프리카	18.2	14.8	15.6	11.3	8.2	8.6	32.7	30.9	33.1	24.8	20.3	21.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8.9	8.5	8.8	7.6	7.6	7.8	13.4	12.8	13.1	11.9	11.8	12.1

출처: ILO(2010:90)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실업률이 더 높으며(152개 국가 중 113개국), 30개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을 5%p 이상 앞지르는 것을 보여준다(ILO, 2010:28).

- 9개 국가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보다 10%p 이상 높다
- 21개 국가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보다 4.9%-10%p 높다
- 56개 국가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보다 0.9%-5%p 높다
- 27개 국가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보다 0.1%-1%p 높다
- 39개 국가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보다 0%-4.7%p 높다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ILO의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들을 종합하면 “여성은 가족적인 이유로 직장을 나오고 또 그 이유로 다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은 몇몇 직종에 몰려있는 ‘과밀(crowding)’ 현상을 나타낸다. 또한 노동시장 외부로부터의 성불평등도 여성의 실업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ILO, 2010:28).

Queneau & Sen(2008)은 OECD 국가들의 남녀간 실업동학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로 (a) 노동시장 정착도(labor force attachment)의 성별 차이 (b) 구직행동에서의 성별 차이 (c) 남녀 간의 산업, 직종 격리수준 (d) 실업수당, 가족수당, 여성에 대한 취업차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을 가정한다. 8개의 OECD국가들(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실증자료를 갖고 단위근 검정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캐나다, 독일, 미국에서 남녀에 따른 실업구조의 차이가 나타난 반면, 호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가 명료하지 않는 데에는 국가별 특성에 더하여 설명변수들의 영향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실업을 탈출할 가능성이 적을 때, 높은 노동시장 정착도는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정착도가 남녀의 실업상태 지속에 미치는 순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직업탐색행동의 성별 차이도 실업의 지속상태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탐색의 강도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서의 차이로 인해 직업탐색 행동이 다르다. 여성은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일이나 아이돌보기에 할당하기 때문에, 직업 탐색의 기회비용이 평균적으로 여성에게 높다. 그 결과 여성의 탐색 강도는 남성보다 덜하며, 여성 실업의 장기화를 낳을 것으로 가정된다. Keith and McWilliams(1999)는 미국 여성이 가족과 육아의 책임 때문에 남성보다 직업 탐색에 덜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유보임금의 효과는 아직 분명치 않다. 여성이 남성보다 탐색 비용이 높다면, 유보임금은 낮을 것이다. 한편 여성은 가사일과 육아의 높은 참여를 보이는 성향 때문에 남성보다 유보임금이 높을 수도 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가사일이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한, 직업탐색의 성별 차이는 여성의 실업 유지를 증가시킬 것이다.

제도 요인의 효과도 복잡하다. Queneau and Sen(2008)은 제도 요인으로서 실업수당, 모성보호제도 및 고용평등법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수당이 관대할 때, 가사일과 육아 활동으로 여성의 직업탐색 강도는 낮고 실업이 지속된다고 한다. 실업수당이 관대한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실업 지속성의 성별 차이가 실업수당이 덜 관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 수당의 지급의무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미국은 관련법령이 적용되는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만이 12주간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모든 일하는 여성이 16주간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 고용에 비용이 많이 들어 고용주들은 가임기 여성을 차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 결과 가족수당이 관대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성의 실업 지속이 남성보다 더 길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평등법의 실효성도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남성보다 적게 고용되고 더 해고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의 실업 지속은 남성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 때 고용평등법이 고용주의 고용 및 해고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강력한 고용평등법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고용평등법이 약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 실업지속의 성별 차이가 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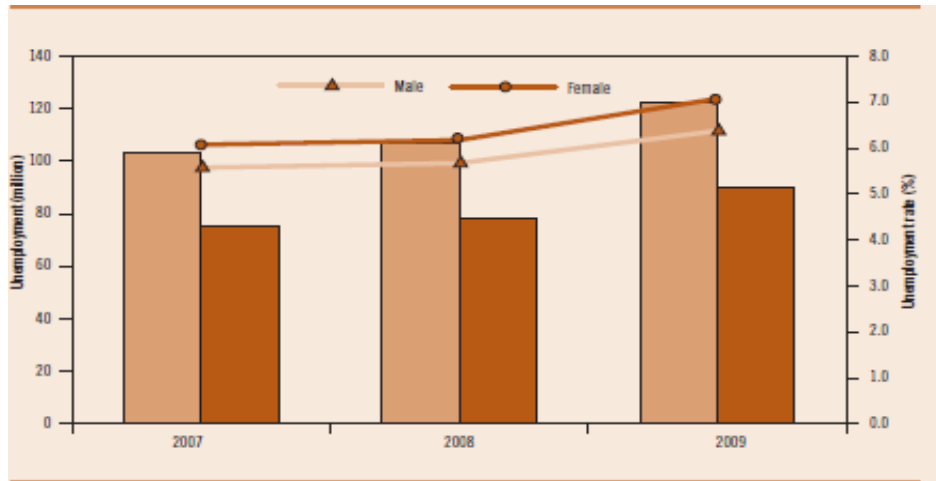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여성 실업변동에 미치는 純효과는 남성의 실업변동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 실업자의 직업 탐색, 관대한 실업수당, 법적 출산휴가의 제공,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등과 같은 요소들은 여성의 실업 지속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업종, 직종 격리는 반대효과를 가진다. 또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정착도가 미치는 효과가 남성에 비해 불분명하다.

### 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ILO(2009)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여성 실업률이 2007년 6%에서 2009년 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5.5%에서 6.3%로 증가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동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남성 실업률이 약간 더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누가 더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불경기의 초기 여파는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금융, 제조업, 건설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성들의 실업률을 높였지만 불경기 여파가 여성이 주로 고용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ILO의 “The GET 2010 report”는 경제위기가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거의 동등한 영향을 미쳐서 2007년~2009년간 성별 실업률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즉 동 기간 중 여성 실업률이 1%p (남성 0.8%p) 증가했다(ILO, 20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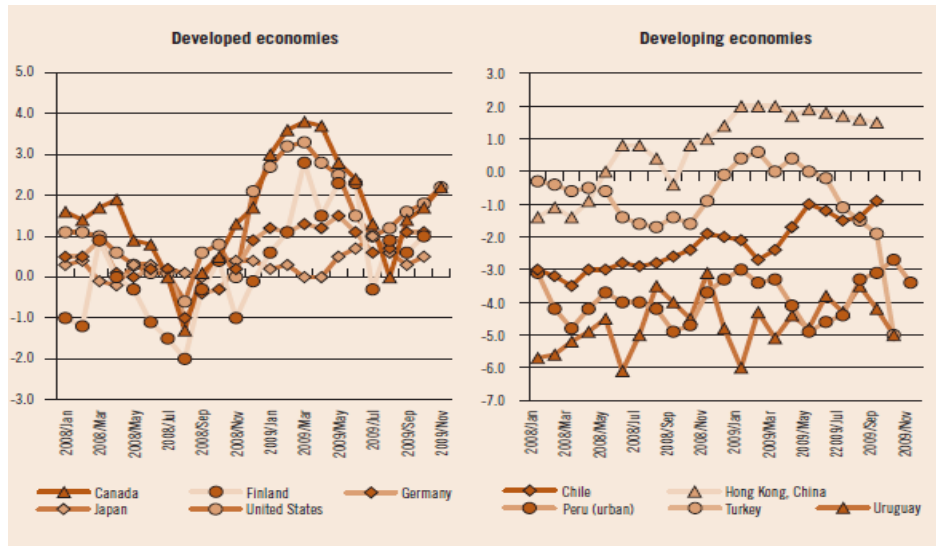


출처: ILO(2009), *Trends Econometric Models*, November

[그림 Ⅱ-2] 경제위기와 실업인구 및 실업률(2007~2009)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월별 실업률의 격차 추이를 살펴보았다. 개도국의 경우 이번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홍콩과 중국의 경우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성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미국, 핀란드, 캐나다의 경우 2008년 8월에서 2009년 4월의 기간 동안에는 남성의 실업률이 높지만 최근에 오면 이 경향은 뒤바뀐다. 이것은 남녀가 집중되어 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인데, 경제위기의 첫 여파가 남성이 많이 몰려있는 제조, 건설, 금융업에 미쳤고 이후 서비스업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ILO, 2010:32).





주: 실업률의 성별 격차=남성 실업률-여성실업률  
출처: ILO LABORSTA database, ILO(2010)에서 재인용

[그림 Ⅱ-3] 월별 실업률의 성별 격차(2008.1~2009.11)

실업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도 실업 후 노동행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번 국제위기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여성 실직자들은 경제가 회복되어도 느리게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할 업종이 다양하지 않아 실직을 할 경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강한데 이러한 이동은 여성고용의 주변성을 강화할 것이다. 반면 남성들은 이런 일자리로 “정착(settle)”하는 경향이 적고 전일제의 “괜찮은 일(real job)”을 얻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실업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젠더 영향은 실업률 증감보다는 이러한 노동력 과소활용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ILO(2009)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의 아시아: 젠더 관점에서의 영향과 대응”에서 고용감축의 첫 번째 대상은 임시노동자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들, 하청이나 영세사업체 근로자 등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실직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왜 위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업종/직종 격리와 더불어 여성은 “완충인력(buffer workforce)”일 가능성이 높고, 직업 탐색을 계속하기보다는 노동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공식 고용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고, 위기시 가족을 돕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부가노동자(added worker)”이라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의 “분석노트: 성평등과 불경기”(M. Smith, 2009)는 실직시 남성은 직업 탐색에 집중하지만, 여성은 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경제 회복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다고 한다. 또한 불경기시 쉽게 접근 가능한 단시간, 임시직이나 유연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여성노동의 주변성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Sahin & Hobbijn(2010)은 2008년 불황에서 미국 내 실업률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2009년 8월까지 남성의 실업률은 11.0%인 반면 여성은 8.3%를 유지하는데, 2.7%p라는 격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격차라고 한다. 이제까지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남성이 몰려 있고, 또 실직남성들이 가계의 유동성 감소로 인해 곧 구직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향후 제조업 하강추이와 건설업 구조조정은 지속되어 고용회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남성의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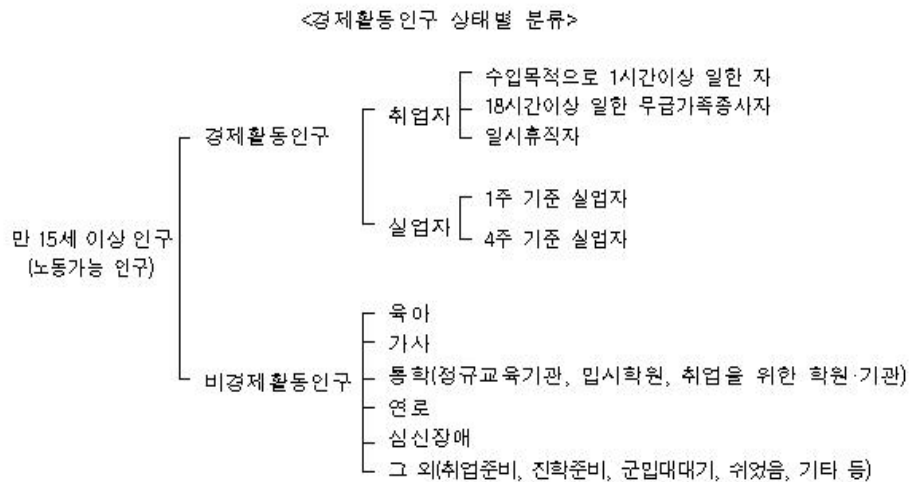
Verick(2009)도 최근 재정 및 경제 위기가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내 성, 연령 등 하위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검증 결과, 청년들의 경우 실업률이 높았고 불안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기 후퇴 속에서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로 직업을 얻는 것이 어려운 반면 나이 많은 노동자들보다 해고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취업자로 남기 어렵다. 또한 젠더변수도 유의한데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과 같은 실업률 증가를 겪었으며, 몇몇 국가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또 장기간 겪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훈련 및 구직 보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입을 통해 실업의 장기화가 장래 커리어와 소득가능성을 악화시키거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성장 분야에서 고용기

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훈련 등 실업 및 미취업기간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4.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를 둘러싼 논의

### 가. 실업률 지표에 따른 실업자 규모

우리나라는 실업자 및 실업률의 측정에서 ILO 기준을 따라<sup>5)</sup>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또는 1주간) 일 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5) ILO 기준 실업자: 조사기간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seeking work actively) 사람

국제적으로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1주간으로 하는 ILO기준과 4주간으로 하는 OECD기준(ILO기준 실업률보다 0.2~0.3%p 상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ILO기준에 따라 실업자·실업률을 산정·공표해오고 있으며, 1999년 6월부터는 OECD기준 실업자·실업률도 함께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교적 낮은 실업률이 실제 실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통계청은 실망실업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국제적으로도 실업통계에 실망실업자는 포함시키지 않는 점<sup>6)</sup> 등에 비춰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실망실업자와 유사한 구직단념자<sup>7)</sup>라는 조사항목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서 1999년 11월부터 발표해오고 있다. 정부가 실업률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규모는 <그림 II-4>에서와 같이 2011년 현재 1,795천명이고, 이들을 포함하여 산출한 실업률은 6.9%에 이른다.

취업자		실업자 (855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희망자 (불완전취업자, 358천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구직단념자, 582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출.

[그림 II-4] 2011년 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구성

그런데 실업관련 통계는 급변하는 고용구조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도 가능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그동안 실업통계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부 실업대책 수립 및 평가의

- 6) 실업률 산정시 실망실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도 실업률 개념이 아닌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7) 금월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던 자료, 현재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 포기한 자.

기초자료, 그리고 국제비교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의 실업통계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보완적 실업지표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대안적 실업률 체계인 U1~U6이다. 공식실업률인 U3을 기준으로 U1, U2는 특정 조건에 있는 실업자 비율을 측정하고, U4, U5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또는 구직단념자)와 경계근로자(또는 한계근로자)를 포괄하는 실업지표이며, U6은 여기에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대안적 실업지표로 정의된다.

이 지표들은 특정 유형의 실업자 및 미취업자군을 파악함으로써 공식실업률을 보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력 과소활용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BLS 지표는 실망실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과거의 구직경험을 요건으로 하는 등 유럽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황수경(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 측정의 최대의 맹점은 취업희망 여부 및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객관화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측정하기 위한 확장실업 지표를 제안하면서, 확장실업 지표가 경제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 BLS 기준 유사실업률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체감실업률을 측정한 김용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완전취업자 중 ‘주변적 실업자’를 어떤 범주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유사실업률이 계산된다고 한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불완전취업자가 많이 증가하여 지표실업률 증가율보다 체감실업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불완전취업자 비중이 높아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보다 최대 2.5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체감실업률과 실제실업률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구조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으며, 불완전고용이 늘고 있는 점은 최근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대안적 실업지표를 개발하기보다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 추가로 노동력 불완전 활용정도를 파악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공표함으로써 실업률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실업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는(황수경, 2011), 우리나라 실업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구조적인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의 통계적 정의에 대한 ‘1시간 기준’은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불완전취업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으며, 구직활동 기준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여 엄격한 범위로 측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잠재실업 측정을 위한 보조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계영역에 있는 다양한 노동력상태를 포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현행의 설문구조에서 각 질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응답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ILO의 표준설문구조를 따르게 되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 단계적으로 파악하면서 각 상태 간 경계영역을 주관적 응답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정해 가는 구조로 된다. ILO 표준설문구조와 현행구조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불완전취업이나 잠재실업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함으로써 괴리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용한 실업률 지표는 취업애로계층을 기존의 불완전 취업자, 구직단념자에 더하여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번 문항>에서 응답자의 주된 활동상태를 파악하는데 여기서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해당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최근 청년층도 여성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sup>8)</sup> 이렇게

8) 청년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자 증가, 초혼 및 출산연령 증가('00년 26.5세→'10년 28.9세) 등의 원인으로 ‘육아, 가사’의 인구가 줄고 ‘쉬었음’, ‘취업준비자’가

하게 되면 취업애로계층 3,367천명이고 실업률은 12%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Ⅱ-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번 문항의 응답치 분포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발령대기	5. 육아	6. 가사
7. 정규교육 기관통학	8. 입시학원통학	9.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0. 취업준비	11. 진학준비	12. 연로
13. 심신장애	14. 군입대대기	15. 결혼준비	16. 쉬었음	17. 기타	

취업자		실업자 (855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주36시간 미만 불완전취업자 (358천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구직단념자) (582천명)	취업준비자 (572천명)	65세 미만 '쉬었음' (약1,000천명)

주: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 기관에 통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

〔그림 Ⅱ-5〕 2011년 (신)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구성

## 나. 공식실업률의 문제점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최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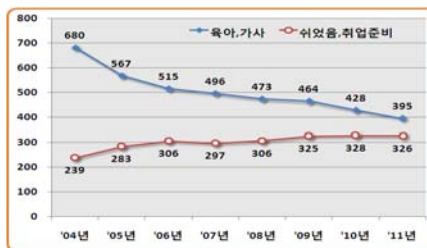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청년층 쉬었음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청년 여성 쉬었음 인구 추이 및 증감(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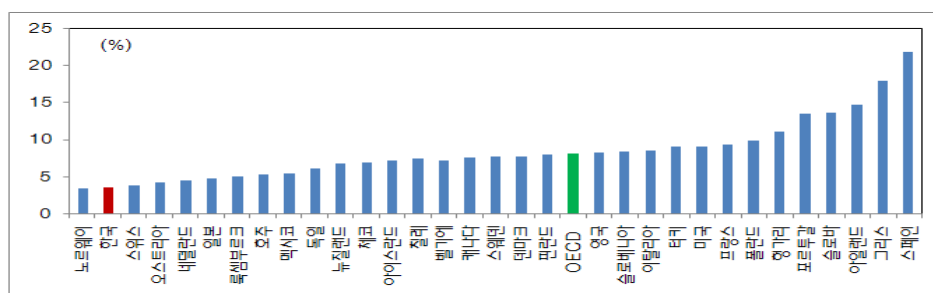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라면(3.5%) 고용률(59%)은 최고가 될 법한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멕시코, 일본 등과 유사한 OECD 평균수준이다.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 '11년 실업률(15-64세)은 3.5%로 OECD 국가(평균 8.1%) 중 최저 수준.  
15세 이상의 실업률은 3.4%.
- 청년(15-29세) 실업률(7.6%) 역시 OECD 국가(평균 13.4%) 중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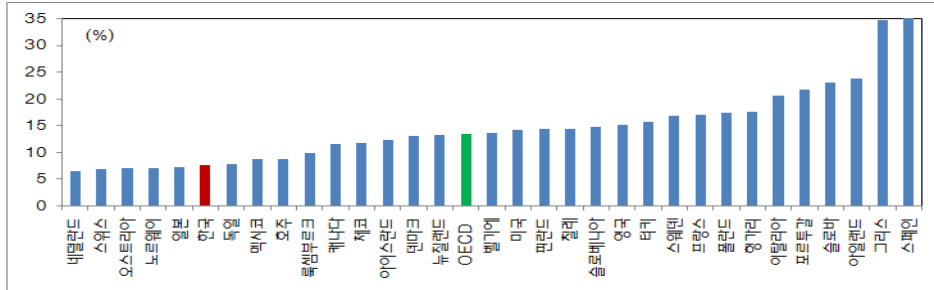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도(6.8%)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0년(14.1%) 이후 추세선은 하락세이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금융위기 기간('08~'09) 중 실업자는 10.6만명(78.3→88.9만명)이 증가했지만, 이것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실업률 역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 움직임이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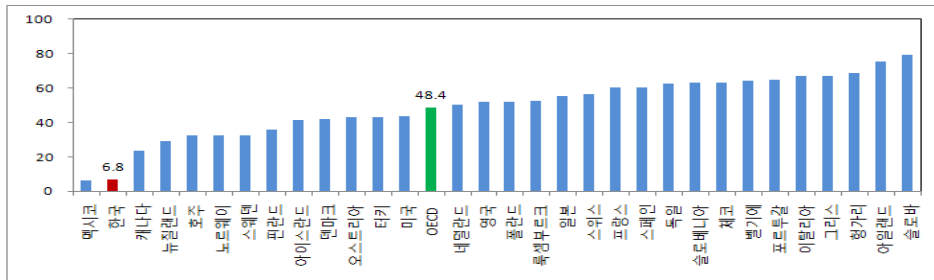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그림 II-6] 실업률(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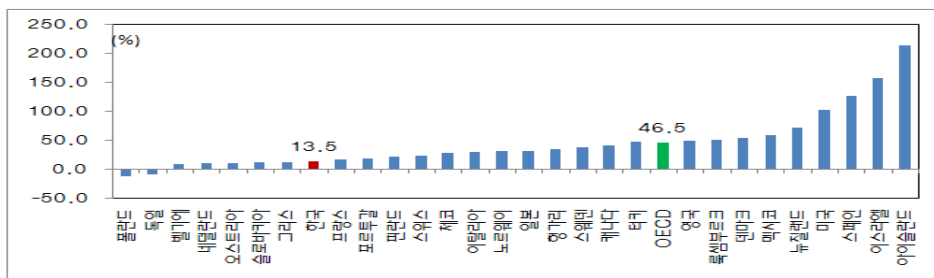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그림 II-7] 청년 실업률(15-29세, 2011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그림 Ⅱ-8] 장기실업자 비중(6개월 이상, 2011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그림 Ⅱ-9] 실업자수 증가율('08~'09년)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는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2%대에 머물렀고,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는 약간 높아져서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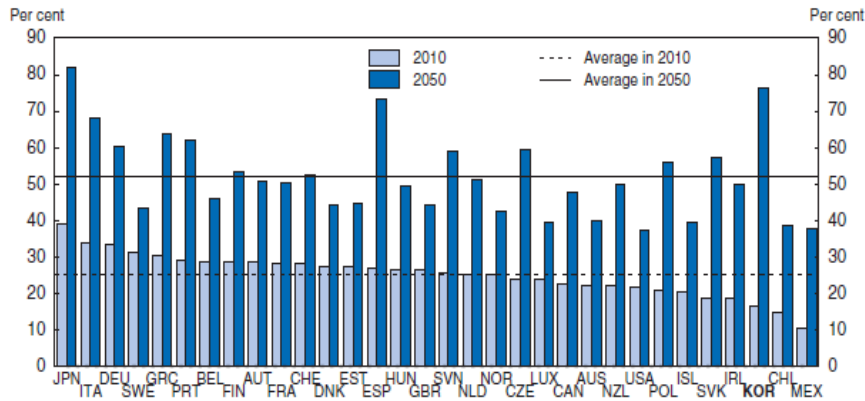
제성장률과의 관계가 크지 않다. 경제성장률의 변동폭이나 방향과 비교해 보면 실업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방향도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편 고용률이 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이 이유에 대해 황덕순(2009:59)은 “노동이동이 취업과 실업 사이에서보다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취업으로의 이동을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볼 경우,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유출이 더 크다. 특히 최근 진행되는 고용조정이 과거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때와 달리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과 임시직, 자영자와 고용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용 감소가 대부분 실업률 증가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경준(2007:145)도 “2005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의사 포기,에 의한 순수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 다. 대안실업률의 개발 필요성

그런데 한국은 지금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부양률 기준으로 현재 3번째로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2050년에는 두 번째로 고령화된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64세 연령대 인구대비 어린이와 노인인구비율인 전체 인구부양비가 3번째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1세기 중반까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0-64세 인구대비 64세 인구의 비중임.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2*, p.17

[그림 Ⅱ-10]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이에 OECD는 「2012 한국 경제보고서」(2012:10)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정책이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대상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기존의 실업률을 넘어 잠재여성인력 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45~64세 연령층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은 55-59세층을 제외하면 뚜렷한 증가추세가 없다. 이것은 여성 중고령층에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고용률 증가는 유배우 여성이 이끌고 있다는 의미이며 가구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부가노동력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들은 실업단계를 거쳐 노동시장으로 들어왔을까? 유배우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퇴출행태를 고려할 때, 아마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실업률 지표로는 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지표로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중점관리지표로 삼으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즉 고용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지표인 실업률 관리를 떠나, 취업자를 늘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률 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진척도를 발표하라는 것이다.

고용률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비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가 적절할 수도 있다. OECD 회원국의 여성 비경제활동비율이 평균 37.7%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50%에 육박하며, 30개 회원국 중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5위를 기록한다.

일본사례를 참고하여,<sup>9)</sup> 경제활동참가율을 산출할 때 취업희망자까지 넣어 ‘가용 여성인력률’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완전실업자, 취업희망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잠재인력률로 명명한 후 연령집단별 잠재인력률을 그리면, 특히 2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까지 가용노동력층을 식별 및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참여율과의 격차가 큰 연령대를 식별하여 이들 여성이 일할 의향은 있지만 실제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표적화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실업률 지표를 넘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등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력활용의 잠재력이 큰 집단을 가려내는 대안적 실업률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국가성장정책 및 고용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9) 日本 總務省(2010), 「勞動力 調査」

# Ⅲ

##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1. 공식 실업률 추이와 특성	37
2. 공식 실업률과 유사실업률	52
3. 유사실업률로 본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64
4. 소결	82

앞서 검토했듯이, 공식적인 실업률만으로는 실업의 실태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다는 현실은 여성실업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사실업이라 일컬어지는 대안적인 실업률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 실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연자료)이며, 2000년대 이후 공식 실업률(경제활동 4주 기준)의 추이와 특성을 성별로 비교해 보아 공식 실업률의 현실과 한계를 모두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인 실업률 지표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과 최근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의된 유사실업률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 실업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공식 실업률 추이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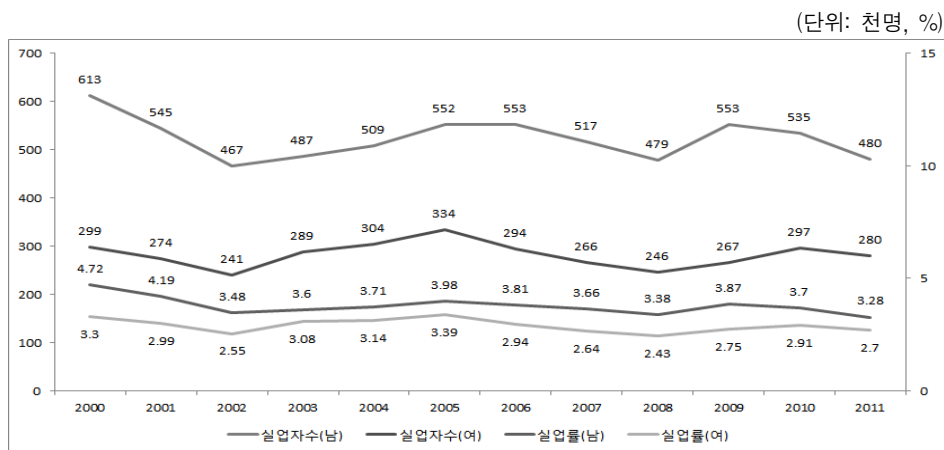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공식 실업률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또는 1주간)<sup>10)</sup>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정의에 따라 측정된다. 이 공식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공표되는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공식 실업률과 이에 따라 실업자로 분류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식 실업률의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사실업률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000~2011년 사이의 성별 공식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남성의 실업률은 3%대, 여성의 실업률은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남녀의 실업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구조의 변화 및 실업자 내의 집단별 특성 등 추가적인 분석

10) 본 연구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출한다(OECD 기준).

이 필요할 것이다.

실업자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남녀의 실업자수 격차가 줄어들고 따라서 전체 실업자수의 규모도 2011년 76만명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1/3 정도 수준인데, 최근 3년간 남성의 실업자수 감소에 비해 여성의 실업자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1] 성별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다음으로는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별 실업률 및 규모와, 실업자의 구직기간 및 구직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기간 추이와 성별 비교를 통해 공식 실업률과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인구학적 특성

### 1) 연령대

연령대별로 남녀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표 III-1), 20대 남성의 실업률이 8~9%대로 매우 높아, 남성 실업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역시 20대의 실업률이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남녀의 실업률 격차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을 알 수 있다.

〈표 III-1〉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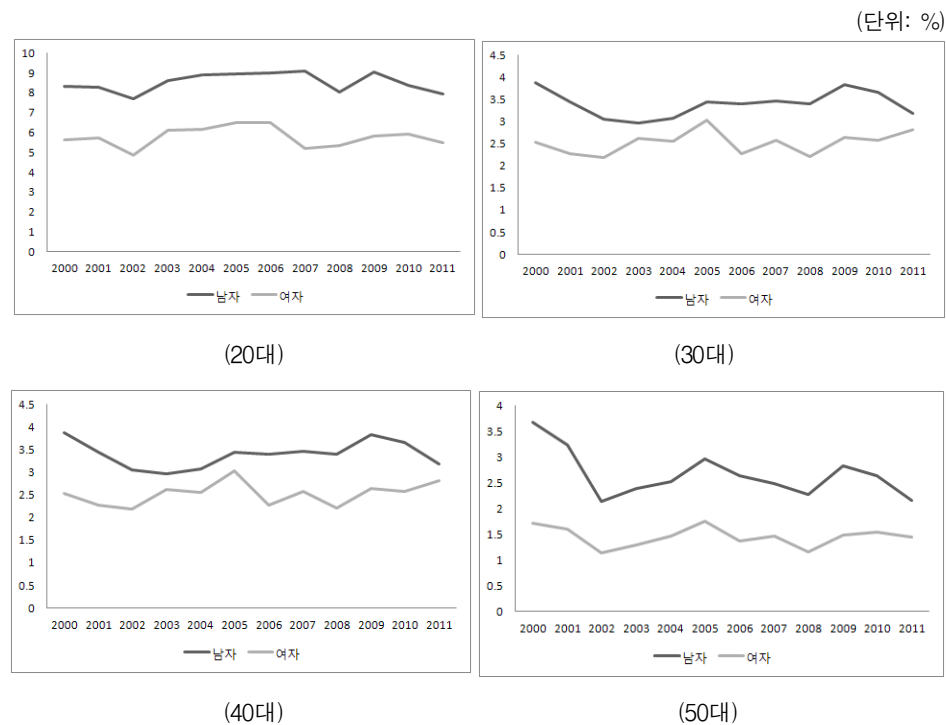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대	남자	8.35	8.29	7.70	8.60	8.90	8.97	8.99	9.11	8.03	9.04	8.36	7.96
	여자	5.61	5.71	4.85	6.11	6.14	6.52	6.50	5.20	5.35	5.81	5.90	5.47
30대	남자	3.87	3.44	3.06	2.96	3.08	3.45	3.40	3.48	3.41	3.84	3.66	3.18
	여자	2.54	2.27	2.20	2.62	2.55	3.04	2.28	2.57	2.21	2.64	2.57	2.82
40대	남자	3.76	3.26	2.13	2.18	2.27	2.67	2.61	2.25	2.22	2.62	2.39	2.05
	여자	2.56	2.16	1.42	1.84	2.04	2.30	1.81	1.70	1.62	1.77	1.98	1.75
50대	남자	3.69	3.23	2.13	2.39	2.52	2.96	2.64	2.48	2.27	2.84	2.64	2.16
	여자	1.71	1.59	1.14	1.30	1.46	1.75	1.37	1.47	1.15	1.48	1.54	1.44
60대	남자	2.21	2.03	1.51	1.46	1.69	2.18	2.27	2.18	1.92	2.08	3.16	2.99
	여자	0.70	0.50	0.64	0.54	0.66	0.66	0.92	0.89	0.51	0.89	2.02	1.47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1년 들어 남녀의 실업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경우 남녀의 실업률 격차가 2.5%p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20대와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 추이가 다른 양상을 보여, 20대 청년층의 실업구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20대는 20~29세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연령대 내에서도 남성의 군입대 시기로 인한 여성 사회초년생과의 대학 졸업의 시기적 차이 등 다양한 변인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청년층 실업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실은 공식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의 규모 증가와 맞물려 공식 실업률은 20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2]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비교

## 2) 교육수준

교육수준별로 남녀 실업률을 살펴보면(표 III-2), 남녀 모두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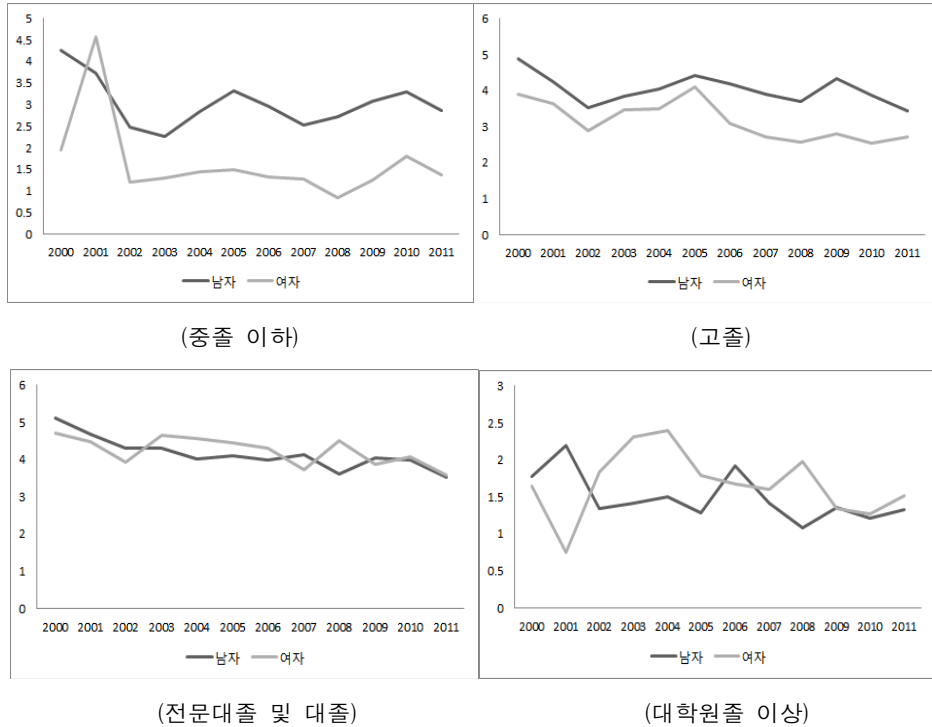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졸이하	남자	4.27	3.73	2.49	2.27	2.83	3.32	2.95	2.53	2.71	3.07	3.31	2.86
	여자	1.94	4.58	1.21	1.30	1.45	1.50	1.33	1.27	0.84	1.25	1.81	1.37
고졸	남자	4.87	4.24	3.52	3.83	4.04	4.41	4.20	3.90	3.70	4.34	3.87	3.43
	여자	3.90	3.63	2.90	3.46	3.49	4.09	3.10	2.72	2.58	2.79	2.55	2.72
전문대 및 대졸	남자	5.10	4.67	4.29	4.29	4.02	4.11	4.00	4.13	3.61	4.03	3.98	3.51
	여자	4.72	4.47	3.92	4.64	4.57	4.44	4.30	3.73	4.50	3.88	4.06	3.58
대학원 이상	남자	1.77	2.19	1.34	1.41	1.50	1.29	1.92	1.41	1.09	1.36	1.22	1.33
	여자	1.64	0.75	1.83	2.31	2.40	1.79	1.68	1.60	1.98	1.35	1.27	1.51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런데 <그림 Ⅲ-3>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교육수준별로 실업률의 추이 및 남녀의 차이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남녀의 실업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전문대졸 및 대졸의 경우 남녀의 실업률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수준별로 실업률의 남녀 격차 및 추이가 다른 것은 연령대 및 연령코호트와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희망 일자리 자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도 교육수준별로 차별화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단위: %)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3]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비교

교육수준별 실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졸 이하의 실업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 이상의 실업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 모두 고졸 학력의 실업자수는 감소하고, 전문대 및 대졸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면서,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표 III-3〉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졸 이하	남자	122	108	68	60	73	84	73	61	63	69	73	62
	여자	69	57	41	40	44	45	39	36	30	33	47	35
고졸	남자	281	240	204	213	225	246	233	215	200	230	204	178
	여자	132	122	104	123	128	151	114	100	90	98	90	97
전문대 및 대졸	남자	200	185	187	204	199	212	213	230	207	242	248	229
	여자	95	92	92	120	126	131	136	124	120	139	153	140
대학원 이상	남자	8	11	7	8	9	8	12	9	7	10	9	10
	여자	2	1	3	4	5	4	4	4	4	4	4	5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3) 혼인상태

남녀 실업자 중 혼인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III-4), 남녀 모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혼이 유배우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 중 유배우의 비중은 남녀 모두 약 60% 수준이고, 남녀 모두 취업자 중 유배우 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 남성 실업자의 경우 미혼이 절반 이상이고, 유배우가 40~43% 정도였고, 사별과 이혼은 6.5% 수준이었다. 반면, 여성 실업자의 경우, 미혼의 비중은 절반 정도로 남성과 비슷하지만, 사별과 이혼의 비중이 10~11%대로 남성에 비해 높았고 유배우 비중은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사별 및 이혼 비중이 19%로 실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은 결국 고용상황이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별, 이혼한 집단에게 있어서는 빈곤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4〉 남녀 실업자의 혼인상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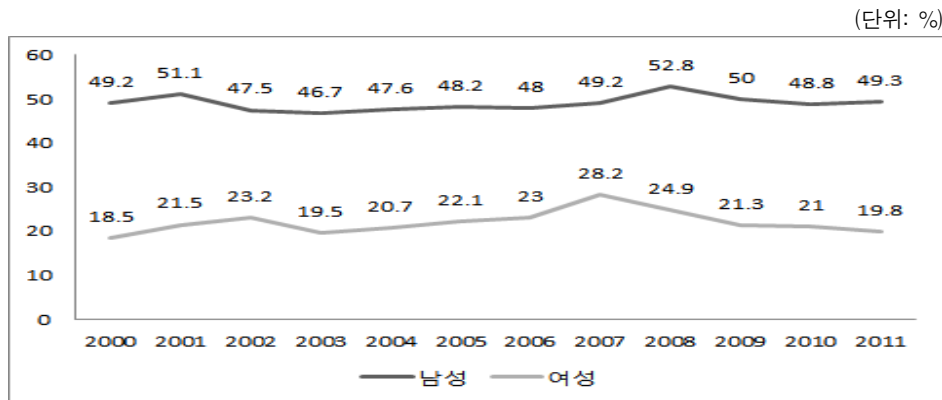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성	미혼	47.5	47.8	55.4	54.4	54.4	51.5	52.6	53.4	53.7	50.6	50.2	50.9
	유배우	47.5	47.2	40.4	40.5	40.5	42.0	40.4	40.6	39.7	43.6	43.3	42.6
	사별,이혼	5.0	5.0	4.2	5.1	5.1	6.6	7.0	6.0	6.6	5.8	6.5	6.5
여 성	미혼	49.2	50.4	55.5	57.5	57.5	54.0	59.1	53.8	55.8	52.8	48.8	49.5
	유배우	41.8	40.3	35.1	33.0	33.0	35.1	29.9	34.2	33.7	37.8	39.4	39.2
	사별,이혼	9.0	9.3	9.4	9.5	9.5	10.9	11.1	12.1	10.5	9.5	11.8	11.3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4) 가구주 여부

남녀 실업자 중 가구주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4>와 같다. 남성 실업자의 경우 가구주인 비중이 절반 정도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 실업자 중에서는 가구주 비중이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11년 기준으로, 남성 취업자 중에서는 가구주 비중이 81.4%, 실업자 중 49.3%, 비경제활동 중에서는 34.2%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가구주 비중의 차이가 큰 반면, 여성 취업자 중에서는 가구주가 24.8%, 실업자 중 19.8%, 비경제활동 중에서는 15.8%로 남성에 비해 격차는 크지 않았다.

여성실업자 중 가구주 비중이 다른 경제활동상태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실업자이면서 가구주인 경우에는 결국 해당 가구의 소득의 문제로 이어져 실업이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남성이 주부양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성 실업자 중 가구주인 경우에는 가구주가 남성이라고 해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까지 고려한다면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 중 가구주의 남녀 특성을 고려한 실업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4] 남녀 실업자의 가구주 비중 추이

## 나. 구직 특성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기준이 ‘구직활동 여부’이기 때문에 실업자의 구직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직관련 항목인 구직 기간, 구직 방법 및 구직 경로를 성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구직 기간

공식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6개월 이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았고,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지며, 3개월 이하가 남성 약 70%대, 여성 약 80%대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구직기간이 1개월인 경우가 최근 들어 더 늘어나 2011년에는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성실업자의 비중이 2000년에는 16.5%였던 것에 비해 점점 감소하여 2011년에는 7.8%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3.6%(2011년)에 비해서는 매우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기간이 대체로 길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장기실업이 많다는 특징을 반영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구직을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Ⅲ-5〉 남녀 실업자의 구직기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성	1개월	35.71	36.38	34.82	39.40	38.99	38.20	38.33	37.39	39.64	40.65	43.61
	2개월	20.78	21.34	20.72	21.23	21.73	21.81	21.38	21.37	21.51	22.16	21.46
	3개월	12.95	13.01	13.52	13.04	13.22	13.54	13.64	13.32	13.48	13.48	12.83
	4개월	8.41	8.56	9.07	8.72	8.41	8.63	8.98	8.76	9.05	8.68	8.40
	5개월	5.65	6.01	6.19	5.83	5.65	5.98	5.88	6.41	6.14	5.98	5.79
	6개월 이상	16.5	14.7	15.68	11.78	12	11.84	11.79	12.75	10.08	9.05	7.81
여성	1개월	45.16	46.18	43.52	49.63	46.66	45.13	46.56	45.06	46.86	50.47	55.05
	2개월	22.08	22.01	22.43	22.86	21.96	22.05	21.79	22.73	22.02	22.24	21.19
	3개월	12.17	12.09	12.73	11.73	12.14	12.57	12.07	13.16	12.43	11.61	10.74
	4개월	7.33	6.87	7.85	6.45	7.24	7.29	7.05	7.60	7.39	6.51	5.95
	5개월	4.21	4.38	4.62	3.99	4.43	4.54	4.25	4.88	4.31	3.85	3.48
	6개월 이상	9.05	8.47	7.85	5.34	7.57	8.42	8.28	6.57	6.99	5.32	3.59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2) 구직방법 및 구직경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구직방법과 구직경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는 ‘구직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표 Ⅲ-6-1>과 같이 구직방법과 경로를 혼합하여 응답을 받아오다가 2008년부터는 ‘구직방법’과 ‘구직경로’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설문방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2000~2007년과 2008년 이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Ⅲ-6-1〉 남녀 실업자의 구직방법 추이(2000~2007)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성	직업소개소등록	3.75	3.54	2.62	3.91	4.02	5.18	5.31	5.35
	취직시험	2.41	2.52	2.47	3.02	3.40	2.81	3.72	3.81
	신문, 잡지 등 구직정보	30.01	33.03	39.70	44.27	43.42	39.1	37.24	38.71
	학교, 학원 추천	1.30	0.93	1.56	0.95	0.90	0.67	1.20	0.57
	사업체 방문	12.92	12.62	9.75	9.92	9.91	15.13	15.53	17.02
	친구, 친지 소개	40.14	37.35	34.34	30.14	31.33	31.12	30.41	28.15
	자영업준비	9.00	9.24	8.94	7.67	6.77	5.58	6.30	6.19
	기타	0.48	0.78	0.61	0.13	0.24	0.41	0.29	0.19
여성	직업소개소등록	5.28	3.35	2.27	4.71	4.00	5.43	4.53	6.31
	취직시험	2.24	3.18	3.34	4.12	3.90	3.82	3.82	4.44
	신문, 잡지 등 구직정보	43.51	46.66	51.26	53.94	55.48	53.21	54.89	52.29
	학교, 학원 추천	3.34	2.19	2.38	1.82	1.89	1.31	2.09	1.19
	사업체 방문	8.99	8.55	8.37	6.77	7.64	9.57	11.15	12.64
	친구, 친지 소개	31.59	30.89	27.18	25.51	23.28	23.99	20.75	20.38
	자영업준비	4.53	4.71	4.87	4.09	3.57	2.42	2.59	2.55
	기타	0.53	0.47	0.33	0.05	0.24	0.25	0.18	0.20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먼저 2007년 이전까지의 결과를 보면, 남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남녀 모두 ‘신문, 잡지 등 구직정보’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친지 소개’와 같은 사적인 경로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 사적 경로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중은 낮지만 ‘사업체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자영업준비’와 ‘학교, 학원 추천’은 남녀 모두 비중은 낮았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직방법과 구직경로를 구분하여 조사한 2008년 이후부터의 결과를 보면, 먼저 구직방법에서는 크게 공적 방법(직업알선기간, 대중매체)



과 사적 방법(학교 및 학원 추천, 친척·친구·동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남녀 모두 공적 방법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여성이 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점점 공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적 방법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Ⅲ-6-2〉 남녀 실업자의 구직방법 추이(2008~2011)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남성	공공 직업알선기관	9.66	11.19	12.73	12.56
	민간 직업알선기관	8.57	8.74	9.00	12.10
	대중매체(신문,잡지,광고)	43.00	44.91	44.69	42.26
	학교, 학원 추천	1.96	1.46	1.40	2.14
	친척, 친구, 동료	33.86	31.51	29.86	29.16
	기타	2.94	2.18	2.32	1.78
여성	공공 직업알선기관	9.10	12.54	20.71	16.58
	민간 직업알선기관	7.33	6.28	7.90	9.72
	대중매체(신문,잡지,광고)	53.38	54.25	47.47	50.82
	학교, 학원 추천	3.29	2.89	2.70	2.48
	친척, 친구, 동료	25.10	22.19	18.86	18.56
	기타	1.79	1.85	2.36	1.84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특히 여성은 공적방법 중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한 구직방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직업알선기관의 비중도 남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친척, 친구, 동료’라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적 방법의 비중은 높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사적 방법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공적 방법의 비중이 더 높아,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서 이러한 남녀의 구직방법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8년 이후 남녀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남녀가 구직

경로의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사업체 문의, 방문’이 약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등록, 구직응모’가 약 30% 정도로, 이 두 응답이 구직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앞서 2007년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자영업 준비’ 비중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Ⅲ-7〉 남녀 실업자의 구직경로 추이(2008~2011)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남성	시험응시	3.67	2.75	3.21	4.06
	구직등록, 구직응모	25.62	25.63	25.37	26.37
	사업체 문의, 방문	60.99	61.91	60.94	59.55
	자영업 준비	6.15	6.83	7.51	6.49
	기타	3.58	2.89	2.98	3.53
여성	시험응시	3.96	3.36	3.79	4.82
	구직등록, 구직응모	24.37	27.17	33.59	28.60
	사업체 문의, 방문	65.05	63.38	56.08	60.10
	자영업 준비	3.08	3.74	3.36	2.61
	기타	3.54	2.35	3.17	3.87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다. 실업기간별 특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 기간은 실업자의 실업탈출이나 재취업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실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으로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주요변수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8〉 남녀 실업자의 전직 시기 추이

(단위: 명, %)

연도	남성			여성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 없었음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 없었음
2000	511,978 79.1	94,083 14.5	40,905 6.3	251,985 76.0	54,482 16.4	25,179 7.6
2001	433,733 79.5	81,433 14.9	30,146 5.5	210,324 76.8	42,751 15.6	20,926 7.6
2002	365,704 78.3	73,625 15.8	27,909 6.0	189,183 78.5	35,512 14.7	16,171 6.7
2003	372,945 76.5	75,751 15.5	38,782 8.0	215,810 74.6	45,002 15.5	28,638 9.9
2004	415,855 77.9	89,043 16.7	29,111 5.5	248,738 76.3	53,732 16.5	23,432 7.2
2005	429,820 77.8	100,415 18.2	22,246 4.0	243,568 72.9	70,968 21.2	19,701 5.9
2006	403,358 75.6	107,076 20.1	22,823 4.3	208,143 70.8	64,935 22.1	21,012 7.1
2007	387,397 74.9	104,225 20.2	25,280 4.9	195,703 73.6	54,645 20.5	15,704 5.9
2008	380,879 75.5	99,151 19.6	24,557 4.9	192,019 72.5	55,061 20.8	17,615 6.7
2009	449,737 77.0	112,721 19.3	21,978 3.8	224,931 73.9	61,898 20.3	17,442 5.7
2010	427,966 74.1	125,061 21.7	24,325 4.2	236,883 69.2	85,663 25.0	19,693 5.8
2011	385,267 72.7	117,882 22.2	26,720 5.0	228,173 70.3	77,116 23.7	19,504 6.0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국제적으로 15주 이상 실업이 지속될 경우 ‘장기실업’으로 분류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에서는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문항에서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일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가 ‘1년 미만/1년 이상’인지를 응답하도록 한 자료를 통해, 공식 실업자 중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은 장기실

업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남녀 모두 공식 실업자 중 예전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즉 남성은 4%대, 여성은 5~6% 정도만이 일한 경험이 없었다. 일을 그만둔지 1년 미만인 비중은 남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남녀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장기실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일을 하고자 하지만 1년 이상 일이 없는 남성은 2005년 이후 10만명을 넘어서 2011년에는 약 12만명이나 되었다. 반면 1년 이상 일이 없는 여성 실업자는 2011년 기준 약 8만명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여성 실업자 중 23.7%나 차지하고 있어 점차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실업자 중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을 기준으로 성별로 연령대와 교육수준의 분포를 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실업자의 특성(2011년)

(단위: 명, %)

연령대	남자	여자	교육수준	남자	여자
20대	46,867 39.8	30,455 39.5	초졸 이하	4,431 3.8	4,437 5.8
30대	28,897 24.5	20,272 26.3	중졸	8,672 7.4	4,471 5.8
40대	13,085 11.1	13,004 16.9	고졸	56,239 47.7	34,011 44.1
50대	13,478 11.4	7,218 9.4	전문대졸	15,710 13.3	15,262 19.8
60대 이상	13,926 11.8	5,124 6.6	대졸 이상	32,828 27.8	18,935 24.6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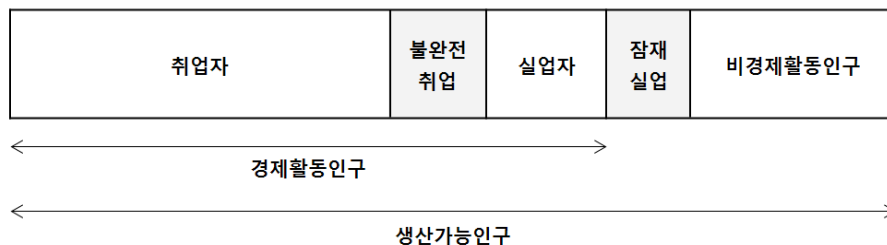
이 분포를 보면 이들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남녀 모두 20대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연령이 적을수록 1년 이상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고졸 학력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여성 24.6%, 남성 27.8%로 많았다. 즉 남녀 모두 2~30대의 비중이 2/3 수준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이 대부분인 가운데, 특히 젊은 고학력층에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실업자 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15주 이상 장기실업의 기간과 성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5장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공식 실업률과 유사실업률

### 가. 유사실업에 대한 논의

유사실업 논의의 요점은 <그림 III-5>로 집약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노동력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최소시간만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취업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림 III-5] 노동력상태의 구성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실업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지만 취업애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준실업 상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실업 논의는 이처럼 취업과 실업의 중간지대(A: 불완전취업), 그리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중간지대(B: 잠재실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명시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상태를 재구성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사실업자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실업자를 정의하는 엄격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지난주 1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 둘째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셋째 지난주에 일이 제시되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난주에 1시간이라도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미취업자들 중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의 정의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 역시 ILO 기준의 허용범주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에서 파악되는 실업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업의 측정을 다양한 범주로 확장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대안적 실업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용현(2005)과 황수경(2010)이 있는데, 김용현(2005)은 미국 BLS의 U1~U6를 차용하여 공식실업률이 대표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잠재실업자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황수경(2010:106-109)은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이 실망실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과거의 구직경험을 요건으로 하는 등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취업준비자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유의 준실업상태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더 확장된 실업률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을 작성할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공식실업률 대비 유사실업률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용상황을 공식실업률로 파악하는 경우 현

저한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황수경(2011)에서는 ILO 기준 및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의 측정 기준과 우리나라의 측정기준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기준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실업급여 포괄범위의 협소함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노동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업희망 의사를 파악하는 데 체계적인 오류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실업의 규모를 과소측정하게 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sup>11)</sup>

이 같은 일련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체감실업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공식실업률과 별도로 체감실업률을 개발,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실업구조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유사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유사실업률 중 대표적으로 미국 BLS의 U1~U6(이하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와 황수경(2010)이 제안한 유사실업률(이하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을 검토 및 비교해보고자 한다.

## 나.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공식 실업률의 대안으로, 국제적으로 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인 U-3(공식 실업률에 해당), U-4(구직단념자 포함), U-5(한계근로자 포함), U-6(한계근로자, 불완전 취업자 포함)의 통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황수경(2011)에서는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노동력상태를 분류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잠재실업인구 비율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됨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분류 문제는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Ⅲ-10〉 미국 BLS 유사실업률의 통계적 정의

유사실업 종류	통계적 정의
한계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자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었고, 노동시장적 사유와 개인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불완전취업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경제적 이유로 평소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한 자 혹은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을 하는 사람

이 통계적 정의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에 적용하여 산출한 유사실업률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1>과 같다<sup>12)</sup>.

미국 BLS의 정의에 따르면, 공식 실업률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와 한계근로자를 포함하는 확대된 실업률이 각각 U-4와 U-5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단념자와 한계근로자가 규모도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다른 유사실업군에 비해서 매우 적어 대안적인 실업률로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규모는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모두 연간 추이 역시 거의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여성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확대된 유사실업률이라 할 수 있는 U-6의 경우에는 한계근로자와 공식 실업률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 취업자가 포함되는데, 불완전 취업자는 그 규모가 남녀 모두 약 4~50만 정도로 한계근로자나 구직단념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고 연간 변동폭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각 항목의 정의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문항과의 매칭은 김용현(2005)의 분석을 참고하였다.



〈표 Ⅲ-11〉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한계근로자	187	133	79	99	108	133	128	116	130	174	243	228
구직단념자	165	120	69	89	100	125	121	108	118	162	220	211
불완전취업자	916	898	847	731	900	905	843	846	925	1033	925	871
U-3	4.14	3.69	3.09	3.39	3.47	3.73	3.44	3.23	2.98	3.4	3.37	3.04
U-4	4.85	4.21	3.38	3.76	3.89	4.23	3.93	3.66	3.45	4.04	4.57	3.85
U-5	4.94	4.26	3.42	3.8	3.92	4.27	3.96	3.69	3.49	4.09	4.65	3.91
U-6	9.06	8.29	7.11	6.98	7.75	8.06	7.45	7.17	7.28	8.3	8.03	7.36
<남성>												
한계근로자	101	78	48	55	57	76	79	73	77	105	144	137
구직단념자	90	72	43	52	54	71	75	69	71	99	132	129
불완전취업자	455	449	442	369	459	473	444	451	474	520	461	445
U-3	4.72	4.18	3.48	3.6	3.71	3.97	3.81	3.66	3.37	3.87	3.7	3.28
U-4	5.37	4.71	3.79	3.97	4.09	4.46	4.32	4.12	3.85	4.53	4.57	4.13
U-5	5.45	4.75	3.82	3.99	4.11	4.49	4.35	4.15	3.89	4.57	4.65	4.18
U-6	8.92	8.18	7.11	6.71	7.44	7.88	7.51	7.33	7.22	8.3	7.81	7.19
<여성>												
한계근로자	86	55	31	44	51	56	50	43	53	68	99	91
구직단념자	75	48	27	38	46	54	46	39	47	63	88	82
불완전취업자	461	449	406	362	441	432	399	395	452	513	463	426
U-3	3.3	2.98	2.54	3.07	3.14	3.38	2.93	2.63	2.43	2.74	2.9	2.7
U-4	4.09	3.49	2.82	3.46	3.6	3.91	3.38	3.01	2.88	3.35	3.73	3.46
U-5	4.21	3.56	2.86	3.52	3.65	3.93	3.42	3.04	2.93	3.4	3.84	3.55
U-6	9.24	8.43	7.13	7.36	8.19	8.28	7.39	6.94	7.38	8.47	8.33	7.62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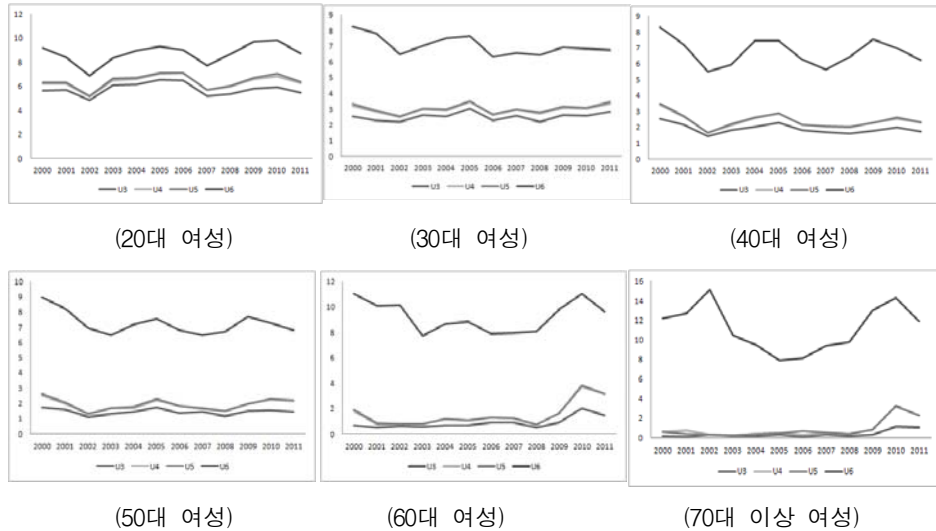
실업이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간 추이는 공식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 변동의 폭은 공식 실업률보다 크다. 이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불완전 취업자 규모의 변화가 U-6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와 변화는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유사실업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단시간 근로로의 유입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공식 실업의 규모와는 달리 U-6의 값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연령대를 나누어 U-3~U-6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III-6>, <그림 III-7>과 같다. 대체로 추이의 경향은 공식 실업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20대의 유사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특히 20대의 유사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남녀 모두 U-3, U-4, U-5와 U-6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U-4, U-5가 높아서인데,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의 비중이 20대가 많고, 이를 포함한 U-6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청년층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하다. 하지만 30대로 가면, 남성의 유사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반면, 여성 30대는 여전히 높은 유사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대와는 달리 U-4, U-5와 U-6와의 격차가 큰데, 이는 한계근로자나 구직단념자보다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30대 여성의 경우 이 연령대의 경력단절 현상과 맞물려, 일하고 싶지만 고용여건이 좋지 않아 단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40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30대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58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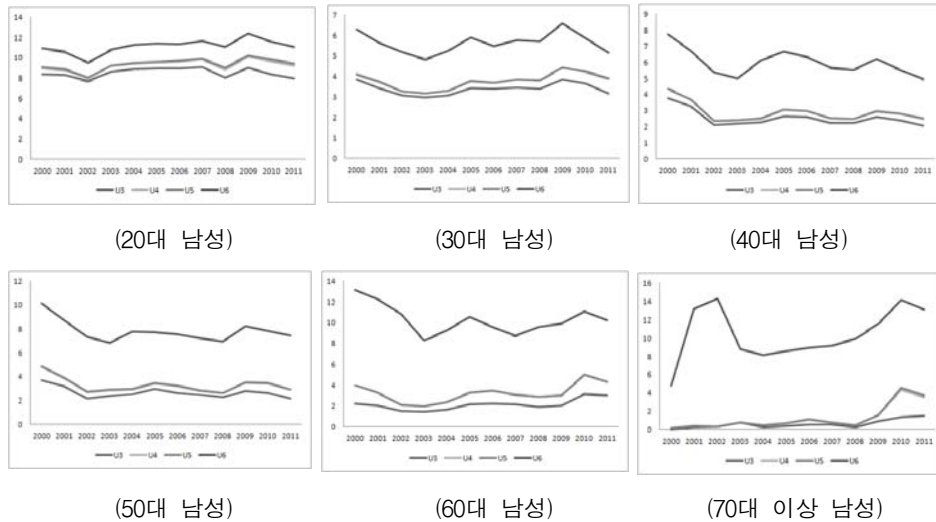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6] 연령대별 여성의 유사실업 비교

(단위 : %)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Ⅲ-7] 연령대별 남성의 유사실업 비교

50대부터는 여성들은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는 줄어드는 반면, 남성은 50대에도 여전히 3~4%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U-6도 3~40대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경제활동 지속기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길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50대 이상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남녀 모두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는 거의 없고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져 오히려 U-6 값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다.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공식 실업률의 대안으로 미국 BLS의 정의에 따른 유사실업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의 유사실업 구조를 파악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한 황수경(2010:1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장실업에서 ‘취업준비자’의 취급을 핵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에서는, 취업준비자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다면 모두 비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취업희망 여부에 관한 추가질문에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 중 극히 소수만이 취업을 원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이 유사실업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취업준비자 중 취업을 원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U-4와 U-5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는 결국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와 한계근로자(경제근로자)의 변별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사실업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은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과는 달리 유사실업군(실망실업자, 경제근로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을 상호배타적으로 정의했다는 점, ‘취업준비자’를 분류한 점, 조사의 설문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 기준을 완화하여 유사실업의 범주를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사실업자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경제근로자, 취업준비자를 포함하는 확장

된 의미의 실업자군을 지칭한다. 이 중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취업 상태이지만 실업자와 유사한 특성을 일부 공유하는 부분실업자라 할 수 있고,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로 파악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잠재실업자들이다. 유사실업자의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기준은 다음 <표 III-12>와 같다.<sup>13)</sup>

〈표 III-12〉 우리나라 유사실업의 유형과 개념

유형		통계적 정의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구직활동 요건의 완화)
	경계근로자	실망실업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sup>14)</sup> 근래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
	취업준비자	지난주 주로 취업을 준비했던 자로서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가 아닌 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자 + 경계근로자 + 취업준비자
취업자	불완전취업자	추가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자, 즉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부분실업자	18시간 미만 일한 불완전취업자
확장실업자		실업자 + 잠재실업자 + 부분실업자
확장실업률		$(\text{실업자} + \text{잠재실업자} + \text{부분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실업자}) \times 100$

다음의 <표 III-13>은 이 기준에 따른 유사실업자의 성별, 유형별 규모와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3) 황수경,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논집 33권3호, 2010

14) 구직활동을 했지만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아 공식실업자에서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희망 여부를 따로 묻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취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Ⅲ-13〉 노동력상태의 확장 및 유사실업자의 규모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완전)취업자	21,795	22,087	22,341	22,682	22,979	23,126	22,960	23,384	23,863
불완전취업자	344	470	515	469	454	451	546	445	381
실업자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20	855
실망실업자	252	300	328	290	270	286	387	510	515
경계근로자	59	70	71	81	70	64	91	150	138
취업준비자	318	355	426	488	502	547	531	538	492
(순수)비경활	13,754	13,575	13,732	13,925	14,112	14,353	14,689	14,644	14,808
유사실업자	973	1,194	1,340	1,328	1,296	1,349	1,555	1,643	1,526
(배율)	(1.19)	(1.39)	(1.51)	(1.61)	(1.66)	(1.75)	(1.75)	(1.79)	(1.78)
<남성>									
(완전)취업자	12,840	12,924	13,013	13,150	13,309	13,411	13,384	13,644	13,911
불완전취업자	191	270	317	295	297	292	350	271	242
실업자	508	534	552	533	517	505	584	577	530
실망실업자	123	143	167	161	154	161	224	278	283
경계근로자	23	28	34	38	31	29	41	64	59
취업준비자	176	195	232	274	287	308	288	291	269
(순수)비경활	4,258	4,217	4,300	4,412	4,487	4,619	4,725	4,723	4,782
유사실업자	513	637	751	768	770	790	903	904	853
(배율)	(1.01)	(1.19)	(1.36)	(1.44)	(1.49)	(1.56)	(1.55)	(1.57)	(1.61)
<여성>									
(완전)취업자	8,955	9,164	9,328	9,533	9,670	9,715	9,576	9,740	9,952
불완전취업자	153	200	198	174	156	159	195	174	139
실업자	310	326	334	294	266	265	304	342	325
실망실업자	129	157	161	129	116	125	163	232	232
경계근로자	36	42	37	43	38	35	50	86	79
취업준비자	142	159	194	215	215	239	243	247	223
(순수)비경활	9,496	9,358	9,432	9,513	9,625	9,735	9,964	9,921	10,027
유사실업자	460	558	589	559	526	559	651	739	673
(배율)	(1.48)	(1.71)	(1.76)	(1.90)	(1.98)	(2.11)	(2.14)	(2.16)	(2.07)

주: ( )안은 공식실업자 대비 유사실업자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공식실업자수에서는 지난 8년간 뚜렷한 변화추세가 발견되지 않지만 유사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어 2003년 공식실업자 대비 1.19배에서 2011년에는 1.78배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3~2011년 기간 중 공식실업자 규모는 남, 여 모두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유사실업자의 경우는 남자는 34만명, 여자는 21만명이 증가하였고 공식실업자 대비 비율로는 남성은 1.01에서 1.61로, 여성은 1.48에서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 라.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앞서 살펴본 미국 BLS와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을 공식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공식실업률과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중 실업을 가장 넓게 해석한 U-6의 배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값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최근 들어 조금씩 그 값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3.08, 즉 그 차이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남녀 유사실업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실업률과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이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는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U-6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이 더 확장된 범주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실업률을 적용하였을 때, 여성에서 공식실업률 대비 배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식실업률이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보여주기에 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Ⅲ-14〉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성	공식실업률	3.8	3.9	4.0	3.8	3.7	3.6	4.1	4.0	3.6
	U-6	8.9	8.2	7.1	6.7	7.4	7.9	7.5	7.3	7.2
	(배율)	(1.86)	(2.00)	(1.98)	(1.97)	(2.00)	(2.13)	(2.11)	(2.10)	(2.19)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7.4	8.3	9.1	9.0	8.8	8.8	10.0	9.8	9.0
	(배율)	(1.96)	(2.14)	(2.29)	(2.36)	(2.41)	(2.48)	(2.45)	(2.46)	(2.51)
여 성	공식실업률	3.3	3.4	3.4	2.9	2.6	2.6	3.0	3.3	3.1
	U-6	9.2	8.4	7.1	7.4	8.2	8.3	7.4	6.9	7.4
	(배율)	(2.39)	(2.60)	(2.44)	(2.51)	(2.63)	(3.03)	(3.08)	(2.86)	(2.82)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7.9	8.8	9.0	8.2	7.6	7.8	9.1	10.0	9.1
	(배율)	(2.41)	(2.61)	(2.66)	(2.79)	(2.87)	(2.99)	(3.00)	(2.99)	(2.92)

주: ( )안은 공식실업률 대비 유사실업률 배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유사실업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은 조사 및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황수경(2010)의 유사실업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경계근로자(한계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 미국 BLS의 경우에는 ‘지난 1년 간 구직활동이 있었던 자’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지난 1년 간 취업 및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로 적용하면서 취업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구직활동 기준을 완화하였다. 현재의 조사구조에서는,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희망 여부를 묻지 않아 취업의사가 있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실업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국 BLS에는 없는 ‘취업준비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자는, 취업준비를 주로 하였던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현재의 조사구조에서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에서 누락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직난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준비자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에 없는 청년층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불완전취업자의 정의는 미국 BLS나 OECD의 정의와 동일한데, 황수경(2010:117)의 분류에서는 불완전취업자 중 주당 18시간 미만 일한 부분 실업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부분실업자로 분류하여 유사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구조가 미국이나 OECD 국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사실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정확한 분류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설문구조를 고려하여 유사실업자 유형을 정의한 황수경(2010)의 유사실업률이 우리나라의 실업구조를 파악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유사실업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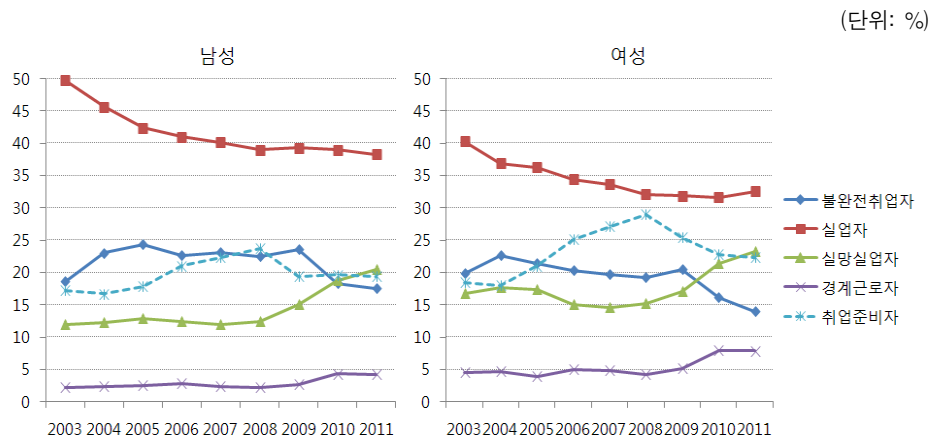
### 3. 유사실업률로 본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본 절에서는 우선 유사실업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규모와 비중,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상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즉 연령대별로 유사실업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실업에는 이전에 일자리가 있었거나, 현재 불완전취업상태로 있는 경우가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유사실업 유형별로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 유사실업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유사실업자 유형별 규모와 변화 추이

유사실업자를 세부유형으로 구분해보면,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취업준비자는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9년 이후 오히려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잠재실업자 중에서도 실망실업자/경계근로자와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상반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완전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에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황을 제외한 취업애로층 전체(잠재실업자+불완전 취업자+공식실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는 남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은 여성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8>. 즉 남성의 경우는 취업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안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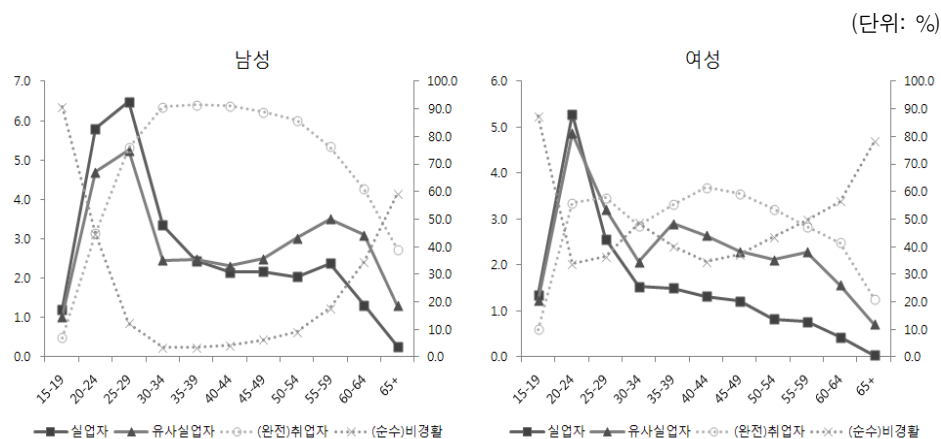
[그림 Ⅲ-8] 취업애로층의 구성과 변화 추이

최근 1-2년 사이 남녀 모두에서 실망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2003년에는 유사실업자 중 불완전취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취업준비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여성에서 불완전취업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취업애로층 여성의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나. 여성 유사실업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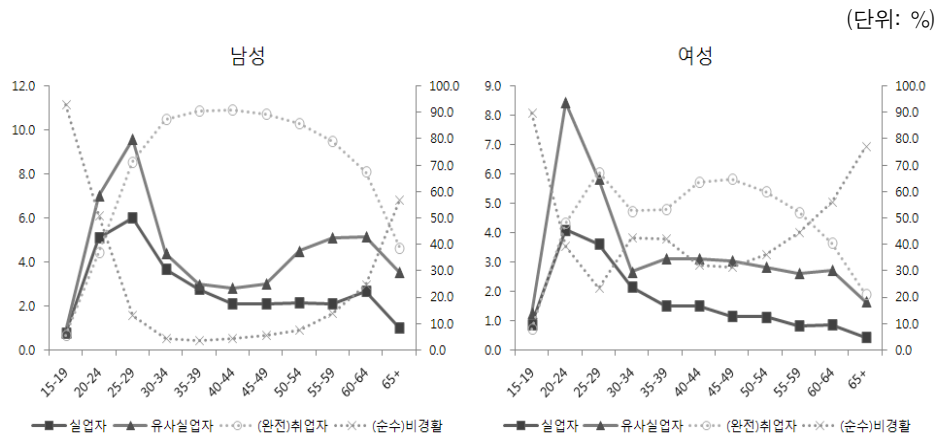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애과정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행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성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Ⅲ-9>와 <그림 Ⅲ-10>은 2003년과 2011년의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유사실업자를 제외한 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활 상태를 의미하고(우측) 실선은 공식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나타낸다(좌측). 그림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연령층에서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그림 Ⅲ-9]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0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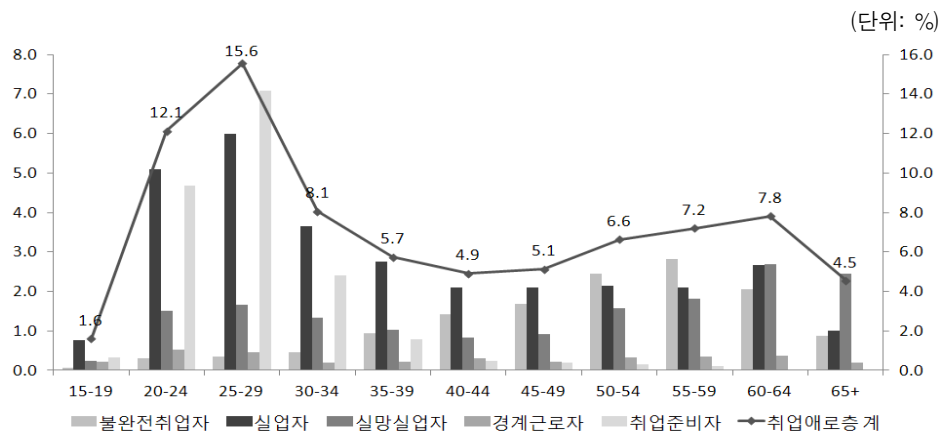
[그림 Ⅲ-10]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11년)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에서는 남성의 U자형 패턴과 여성의 M자형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남성의 경우 청년기에 점차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30-40대 핵심연령층에는 90% 가까이 취업 상태에 있다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청년기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30대에는 비경활이 증가하여 취업자가 감소하게 되며, 40대 이후에 일부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만 취업자 비중은 60% 초반대에 머물다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서서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연령대별 추이에서도 성별로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유사실업자는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는 남성의 고용상황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실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그 후에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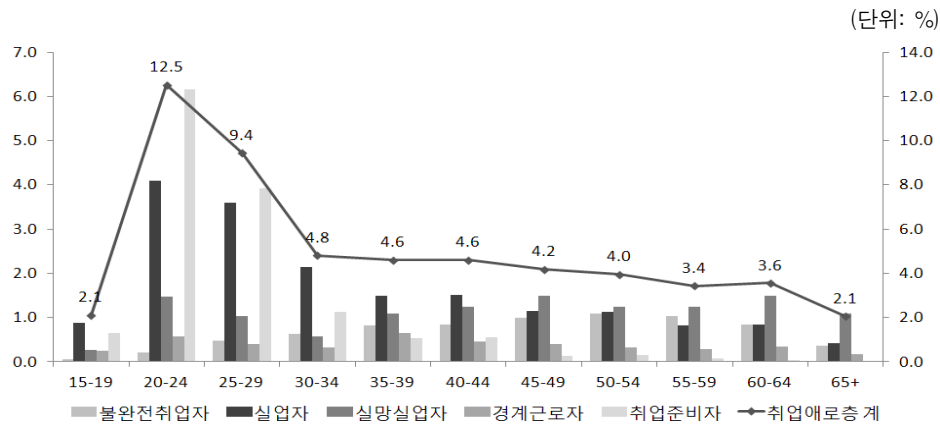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고용상황은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1>과 <그림 Ⅲ-12>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로 취업애로층의 세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비중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그 후에도 남성은 30대 초반까지 취업준비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불완전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남성 핵심연령층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인 50대 이후에서는 실망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Ⅲ-11] 남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층의 구성(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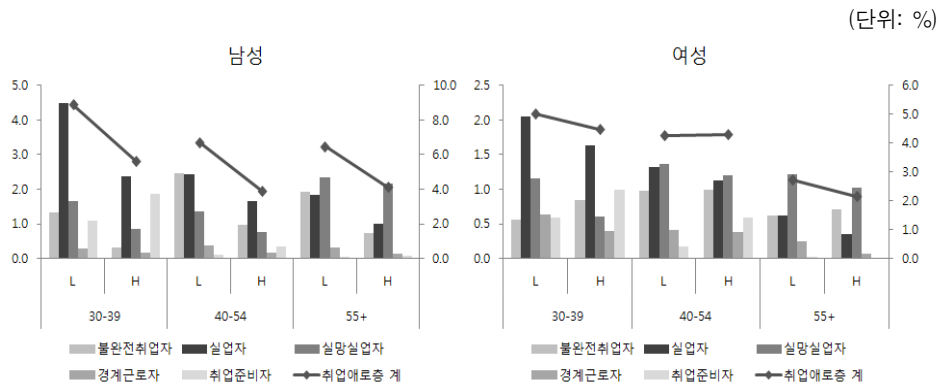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Ⅲ-12] 여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총의 구성(2011년)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핵심연령층에서도 불완전취업자보다는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노동시장 구속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3>은 학력수준에 따라 유사실업자 규모 및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취업애로총이 많고 유사실업자의 구체적인 형태에서도 불완전취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학력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의 규모에서 학력간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실업자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은 학력요인에 의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 L은 고졸 이하, H는 초대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Ⅲ-13] 연령×학력수준별 취업애로층의 구성(2011년)

## 다. 여성 유사실업자의 노동력상태별 일자리 특성

여기서는 개인의 노동력상태, 특히 유사실업 상태가 일자리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자 및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의 특성으로, 현재 미취업자인 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내 이직한 자에 한해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sup>15)</sup>

다음의 <표 III-15>는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산업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실업자 중 불완전취업자는 남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을 위시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산되어 있다. 불완전취업자는 공식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처럼 업종의 분포는 취업자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업종분포 중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21%로 가장 많았는데, 여성 취업자 중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11%인 것과 비교해 보면 비중이 상당히 크다.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본래 여성 취업자가 많은 업종이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불

15) 2011년의 경우 실업자는 72%, 잠재실업자는 45%, 비경활자는 19%가 1년 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취업에서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 여성이 불완전취업 상태로 취업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5〉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산업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농림어업	6.1	4.8	1.1	3.6	4.4	1.2	12.6	6.8	6.2	1.4	6.1	3.6	0.3	15.2
광업	0.1	0.1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20.1	8.8	18.2	11.7	14.0	14.4	10.7	12.6	13.3	12.0	15.3	12.2	5.5	10.4
전기·가스·수도	0.4	0.0	0.2	0.4	1.3	0.0	0.2	0.1	0.0	0.2	0.2	0.0	0.0	0.1
하수폐기물처리	0.4	0.2	0.3	0.3	0.6	0.4	0.2	0.1	0.1	0.1	0.1	0.1	0.0	0.0
건설업	10.6	47.3	19.8	31.8	25.2	10.1	14.6	1.5	3.4	2.1	2.3	2.6	0.5	1.4
도소매업	14.4	8.9	13.8	8.9	15.0	17.1	14.7	16.0	12.2	15.7	13.4	17.3	15.3	15.8
운수업	8.6	8.2	5.7	3.6	5.3	5.5	4.7	1.2	0.6	1.3	1.1	1.1	1.1	0.9
숙박·음식점업	4.5	3.1	7.2	5.4	5.5	9.9	12.6	12.1	12.2	14.1	16.4	15.6	21.1	15.4
출판·영상·방송	3.7	1.4	4.0	2.5	1.5	2.6	1.7	1.8	0.4	3.4	0.6	3.4	4.6	1.3
금융보험업	3.0	0.4	1.8	1.2	1.1	1.3	0.9	4.3	0.7	1.2	0.9	1.9	3.5	1.3
부동산임대업	2.2	1.9	2.2	3.4	1.5	2.2	1.8	1.8	0.6	2.1	1.4	1.0	1.2	1.4
전문·과학기술	4.9	1.2	3.4	1.8	1.7	5.5	1.8	2.8	1.6	3.8	1.3	1.9	5.3	1.7
사업지원	4.3	4.8	7.5	8.4	6.8	5.8	5.6	4.8	5.2	5.8	6.0	5.4	3.7	4.0
공공행정	4.5	0.6	3.5	7.6	4.0	3.6	4.6	3.3	1.9	8.9	10.8	7.4	4.9	5.8
교육	3.9	3.1	3.3	2.0	2.7	10.6	4.8	11.1	21.0	8.0	8.5	5.7	18.1	8.2
보건·사회복지	1.8	0.0	1.8	0.9	1.5	2.2	1.7	10.6	6.5	12.9	6.3	9.6	8.7	6.8
문화·여가	1.7	1.9	3.3	2.0	4.4	3.5	3.7	1.7	2.5	2.1	1.2	2.6	2.2	2.3
수리·기타 개인	4.8	3.2	2.9	4.3	3.6	4.3	3.2	7.3	11.5	5.0	8.1	8.5	3.8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공식실업자의 직전 일자리 구성과 비교할 때, 남성은 건설업과 공공행정<sup>16)</sup> 분야에서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게 되며, 여성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이들 잠재실업자가 많이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망실업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에서 이직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계근로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취업과 비경황 상태를 빈번하게 왕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취업준비자의 직전 일자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주로 청년층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때 이들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의 <표 III-16>은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직종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높다. 특히 실망실업자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다. 취업준비자는 청년층과 고학력이 많은 특성 때문에 남녀 모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직종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27.3%로 단순노무종사자 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불완전취업자 여성 중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16)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이 정부지원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직 후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표 Ⅲ-16〉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직종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활	완전 취업자	불완 전취업	공식 실업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활
				실망 실업자	경계 근로자	취업 준비자					실망 실업자	경계 근로자	취업 준비자	
관리자	3.3	0.5	1.2	0.9	1.7	2.4	1.1	0.5	0.1	0.1	0.0	0.1	0.0	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4	10.3	15.1	7.5	8.8	20.5	7.8	20.8	27.3	17.7	9.1	12.7	27.0	12.5
사무종사자	15.2	0.8	10.6	6.5	6.6	18.4	6.7	18.8	2.5	28.0	11.9	16.7	27.1	13.7
서비스 종사자	5.9	3.3	8.4	7.4	9.1	12.5	12.8	16.2	17.7	17.0	15.2	20.0	18.4	16.7
판매종사자	10.1	4.5	8.4	6.9	8.1	9.2	8.6	14.7	8.4	12.0	11.5	14.3	17.2	14.3
농림어업 숙련자	5.9	4.2	0.9	3.0	3.5	1.9	11.1	5.9	2.2	0.3	1.8	1.3	0.0	1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3.2	33.1	16.8	18.3	19.8	6.8	9.7	3.3	6.5	1.4	3.4	3.0	1.0	2.7
기계조립 종사자	17.3	15.0	13.9	9.0	11.7	8.5	7.3	3.3	1.9	3.0	2.6	2.7	2.0	2.2
단순노무 종사자	10.7	28.3	24.7	40.7	30.6	19.9	34.8	16.6	33.4	20.4	44.5	29.2	7.3	2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기업의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표 III-17>,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잠재실업자와 공식실업자 모두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불완전취업자는 5인 미만 비중이 64.2%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반면 여성의 경우 취업자와 잠재실업자 간 기업규모 비중이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완전취업자도 5인 미만 비중이 43.1%로 높아 취업자와 잠재실업자 간의 기업규모 비중의 격차는 적었다. 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5인 미만 비중이 67.9%로 매우 높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순수비경활 여성의 경

우에도 5인 미만 규모의 비중이 53%로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청년층과 고학력이 많은 취업준비자는 남성은 100인 이상의 비중이 17.9%로 다른 노동력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12.5%로 다른 노동력상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Ⅲ-17〉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사업체 규모(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자	경계 근로자	취업 준비자					실망 실업자	경계 근로자	취업 준비자	
1-4	37.0	64.2	30.0	37.3	33.4	25.2	44.2	43.1	67.1	31.9	42.7	45.9	37.2	53.0
5-9	13.7	21.6	22.6	26.6	24.9	21.5	21.1	14.3	13.2	21.5	19.1	18.9	18.2	16.5
10-29	16.7	10.4	23.0	22.1	20.9	21.1	17.4	16.8	11.8	21.5	21.0	15.7	18.7	14.8
30-99	14.0	2.5	14.8	8.9	11.7	14.3	9.2	14.5	5.8	12.8	10.9	10.2	13.3	8.8
100-299	8.5	0.8	5.5	2.3	6.1	10.0	4.0	5.5	1.5	6.1	2.3	4.6	4.8	3.6
300+	10.0	0.5	4.1	2.8	3.1	7.9	4.1	5.8	0.6	6.2	4.0	4.8	7.7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특히 노동력상태 중 불완전취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남성 약 96%, 여성 약 92%로 이들 집단의 열악한 고용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노동력상태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불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활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장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비중에 비해 실업 및 잠재실업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임을 의미하지만 그중에서도 잠재실업이 많다는 것은 실직 위험에 대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부문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표 Ⅲ-18>.

〈표 Ⅲ-18〉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종사상 지위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상용직	49.7	1.7	30.8	14.6	16.2	31.1	11.4	37.5	4.0	28.1	8.9	12.1	22.1	12.6
임시직	14.9	10.4	35.5	31.6	30.3	36.2	31.4	28.8	23.6	47.1	44.8	40.8	51.7	33.7
일용직	6.0	48.7	24.5	42.7	39.5	21.2	34.2	7.4	39.9	19.8	38.0	35.2	18.4	28.0
고용주	8.4	5.5	2.1	2.1	3.2	1.9	2.6	3.3	1.1	0.9	1.0	0.1	0.1	1.7
자영자	19.8	32.4	6.0	8.1	9.2	5.6	15.9	12.2	27.3	3.3	5.1	6.3	3.3	10.2
무급가족	1.2	1.4	1.1	0.9	1.7	4.0	4.5	10.8	4.1	0.7	2.3	5.5	4.4	1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불완전취업의 경우는 일용직과 자영자에서, 잠재실업의 경우는 일용직과 임시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는 현재 불완전 취업 형태로 취업해있거나 이직 후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취업준비자는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와는 달리 일용직 비중은 비교적 낮고 임시직과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같은 잠재실업이라 하더라도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라. 성별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

이와 같은 유사실업 공식실업과의 차이를 토대로, 유사실업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및 일자리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별로 결정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사실업자 집단 중 대표적으로 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를 종속변수(기준변수는 공식실업자)로 하고, 학력, 연령, 혼인상태, 가구주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종사상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와 같은 일자리 특성<sup>17)</sup>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로짓분석 방법을 통해 유사실업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 + \cdots + \beta_n x_n$$

- 종속변수  $Y_i$  :  $i=1$  공식실업자,  $i=2$  실망실업자,  $i=3$  취업준비자,  $i=4$  불완전 취업자
- 독립변수  $x_n$  : 학력, 연령대, 혼인상태, 가구주유무,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다항로짓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표 III-19>와 같다.

17)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의 특성, 현재 미취업자인 공식실업자, 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는 1년 이내 이직한 자에 한해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

〈표 Ⅲ-19〉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된 변수

구분	변수명	설명
유사실업 형태	unemp(ref.)	공식실업자
	dis	실망실업자
	prep	취업준비자
	add	불완전취업자
교육정도	[edu20=1]	중졸이하
	[edu20=2]	고졸
	[edu20=3]	전문대졸
	[edu20=4](ref.)	대졸이상
연령별	[age11=2]	20~29세
	[age11=3]	30~39세
	[age11=4]	40~49세
	[age11=5]	50~59세
	[age11=6](ref.)	60세 이상
혼인상태	[mar11=1]	미혼
	[mar11=2](ref.)	기혼
가구주 여부	[hrelumdum=0]	가구주 아님
	[hrelumdum=1](ref.)	가구주
종사상 지위	[status=1.00]	상용직
	[status=2.00]	임시 및 일용직
	[status=3.00](ref.)	고용주 및 자영자
산업	[ind_re=1.00]	농림어업제조업
	[ind_re=2.00]	전기가스수도건설업
	[ind_re=3.00]	도소매업
	[ind_re=4.00]	숙박음식업
	[ind_re=5.00]	금융보험및부동산업
	[ind_re=6.00]	기타사업서비스업
	[ind_re=7.00](ref.)	교육서비스업
직종	[occ_re=1.00]	관리직 및 전문직
	[occ_re=2.00]	사무직
	[occ_re=3.00]	서비스직
	[occ_re=4.00]	판매직
	[occ_re=5.00]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occ_re=6.00](ref.)	단순노무직
사업체 규모	[size_re=1.00]	5인 미만
	[size_re=2.00]	5~9인
	[size_re=3.00]	10~29인
	[size_re=4.00]	30~99인
	[size_re=5.00](ref.)	100인 이상

남녀를 나누어 공식실업자 대비 유사실업자를 결정짓는 유의한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20>과 같다. 유사실업자 유형 중 실망실업자를 먼저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 전문대졸일 경우, 가구주가 아닐 경우 실망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았는데,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계수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전직 일자리의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중졸 이하이고 가구주가 아닐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은 것은 여성과 비슷하였으나,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업일수록, 판매직 근로자일수록, 10인 미만 규모일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고용주 및 자영자가 아닐수록, 교육서비스업이 아닐수록, 단순노무직이 아닐수록 공식실업자 대비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낮아졌다. 남성은 고졸, 60대 미만,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도소매, 숙박음식업, 관리직 및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유사실업 중 취업준비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앞서의 특징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남녀 모두 20대의 계수값이 각각 2.12, 4.64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어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 미혼, 가구주가 아닐 경우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다. 한편 여성 취업준비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종사상 지위가 임시 및 일용직일수록 확률이 높았고, 직종 중 판매직일수록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역시 확률이 높아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전직 일자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낮아지는 집단은,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일수록,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관리직 및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이었다. 남성도 유사하였으나,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아진 반면, 남성은 오히려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취업준비자의 경우 전직 사업체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취업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대가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계수값이 0.28로 남성 0.10에 비해 높아 여성 장년층 불완전취업자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 고졸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 학력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은 오히려 전문대졸 이하 학력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낮아져, 학력수준은 공식실업자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직종에 있어서는 여성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오히려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은 공식실업자의 전직 직종이 단순노무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낮아지는 집단은, 여성은 전문대졸 이하, 2~30대, 미혼,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전기가스수도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사무직 및 판매직이었으며, 남성도 거의 유사했다.

여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일수록 확률이 높아졌고 이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직이나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연령효과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0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확률이 높아졌다. 불완전취업자 결정요인에서 가장 큰 남녀의 차이는 학력의 효과인데, 여성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유사실업의 유형별로 다른 결정요인을 갖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 유사실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사실업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학력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Ⅲ-20〉 성별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여성		남성	
		B	S.E	B	S.E
실망실업자	절편	.738***	.035	-.074***	.033
	[edu20=1]	.177***	.019	.180***	.013
	[edu20=2]	.000	.015	-.064***	.011
	[edu20=3]	.075***	.017	-.006	.014
	[age11=2]	-1.281***	.023	-1.434***	.017
	[age11=3]	-1.155***	.019	-1.143***	.015
	[age11=4]	-.644***	.016	-.950***	.013
	[age11=5]	-.522***	.015	-.412***	.011
	[mar11=1]	-.232***	.016	-.013	.012
	[hrel dum=0]	.576***	.010	.449***	.010
	[status=1.00]	-.959***	.023	-.599***	.017
	[status=2.00]	-.066**	.020	-.060***	.014
	[ind_re=1.00]	-.662***	.022	.009	.024
	[ind_re=2.00]	-.740***	.031	.350***	.024
	[ind_re=3.00]	-1.020***	.023	-.567***	.026
	[ind_re=4.00]	-.892***	.022	-.377***	.029
	[ind_re=5.00]	-.933***	.030	.231***	.027
	[ind_re=6.00]	-.998***	.018	-.037	.024
	[occ_re=1.00]	-.916***	.021	-.689***	.016
	[occ_re=2.00]	-.580***	.016	-.247***	.016
	[occ_re=3.00]	-.382***	.014	-.076***	.017
	[occ_re=4.00]	-.092***	.018	.156***	.017
	[occ_re=5.00]	-.136***	.019	-.493***	.009
	[size_re=1.00]	.352***	.018	.316***	.017
	[size_re=2.00]	.224***	.018	.182***	.017
	[size_re=3.00]	.288***	.018	.027	.017
	[size_re=4.00]	.269***	.019	.015	.018
취업준비자	절편	-3.514***	.085	-3.887***	.163
	[edu20=1]	-1.893***	.038	-1.937***	.036
	[edu20=2]	-.823***	.014	-.960***	.013
	[edu20=3]	-.406***	.015	-.772***	.015
	[age11=2]	2.120***	.080	4.639***	.161
	[age11=3]	1.163***	.079	4.000***	.161
	[age11=4]	1.295***	.078	2.792***	.162
	[age11=5]	1.282***	.078	3.513***	.162
	[mar11=1]	.865***	.018	.502***	.017
	[hrel dum=0]	.225***	.017	.498***	.015
	[status=1.00]	.182***	.030	-.614***	.024
	[status=2.00]	.897***	.028	-.596***	.022
	[ind_re=1.00]	-.981***	.027	-1.134***	.024
	[ind_re=2.00]	-1.380***	.053	-.898***	.024
	[ind_re=3.00]	-.903***	.024	-.738***	.025
	[ind_re=4.00]	-.137***	.024	-.645***	.029

		여성		남성	
		B	S.E	B	S.E
취업준비자	[ind_re=5.00]	-.032	.028	-.885***	.030
	[ind_re=6.00]	-.641***	.018	-.753***	.022
	[occ_re=1.00]	-.238***	.025	-.208***	.019
	[occ_re=2.00]	-.191***	.024	-.159***	.019
	[occ_re=3.00]	-.167***	.023	-.012	.021
	[occ_re=4.00]	.326***	.026	-.283***	.021
	[occ_re=5.00]	.735***	.033	-.102***	.017
	[size_re=1.00]	.515***	.019	-.560***	.018
	[size_re=2.00]	.233***	.020	-.232***	.017
	[size_re=3.00]	.199***	.019	-.386***	.017
	[size_re=4.00]	.298***	.020	-.486***	.018
불완전취업자	절편	1.338***	.036	.776***	.034
	[edu20=1]	-.212***	.019	.200***	.013
	[edu20=2]	-.588***	.015	.040**	.012
	[edu20=3]	-.562***	.018	.039*	.016
	[age11=2]	-1.235***	.024	-1.276***	.019
	[age11=3]	-.290***	.019	-.835***	.014
	[age11=4]	.023	.017	-.180***	.012
	[age11=5]	.281***	.015	.104***	.011
	[mar11=1]	-.654***	.016	-.114***	.011
	[hrelumd=0]	.077***	.010	-.277***	.010
	[status=1.00]	-2.602***	.021	-3.397***	.021
	[status=2.00]	-1.144***	.015	-1.239***	.011
	[ind_re=1.00]	-.335***	.022	-.491***	.022
	[ind_re=2.00]	.005	.031	.293***	.021
	[ind_re=3.00]	-.413***	.024	-.562***	.023
	[ind_re=4.00]	-1.449***	.022	-1.074***	.028
	[ind_re=5.00]	-.963***	.034	-.845***	.026
	[ind_re=6.00]	-.953***	.018	-.720***	.021
	[occ_re=1.00]	.339***	.020	-.077***	.016
	[occ_re=2.00]	-1.513***	.024	-1.177***	.030
	[occ_re=3.00]	.219***	.015	-.508***	.021
	[occ_re=4.00]	-.631***	.021	-.743***	.018
	[occ_re=5.00]	.139***	.019	-.031***	.008
	[size_re=1.00]	1.180***	.023	1.114***	.023
	[size_re=2.00]	.655***	.024	.727***	.023
	[size_re=3.00]	.511***	.024	.219***	.024
	[size_re=4.00]	.387***	.026	.224***	.027
-2 Log Likelihood		479449.186***		625820.019***	
N		488,726		717,238	

주: 종속변수 기준변수는 공식실업자, 독립변수 기준변수는 각각 대졸 이상, 60대 이상, 기혼, 가구주, 고용주 및 자영자, 교육서비스업, 단순노무직, 100인 이상임.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다항로짓을 통해 유사실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유사실업 유형별 성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분석에 사용된 인구학적 변수(연령,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와 일자리 특성(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들은 공식실업자에 비해 유사실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이 공식실업과 유사실업에 따라 다르고, 즉 공식실업과 유사실업이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사실업 유형별로도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 공식실업을 둘러싼 확장된 형태의 유사실업 유형별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4. 소결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식실업률과 이를 확장한 형태의 유사실업률 분석하였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통계청의 실업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2~3% 수준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 시점에서의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니었다.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남녀 실업률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실업자의 특성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은 40대 이후로 갈수록 실업률이 1%대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구조에 있어서 연령의 효과가 가장 커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가구주 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있어서도 연령대에 따른 특징이 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에서는 ‘구직 행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구직의 특성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구직 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실업자 중에 남성이 많다는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구직기간이 짧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구

직을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직방법 및 구직경로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식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지 1년 이상이 된 집단을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20대의 비중이 높아 청년실업의 심각함이 드러났으며, 특히 젊은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업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식 실업률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표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주요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어 구직을 독려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실업률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비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열악한 환경의 취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안적인 실업률 중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에 취업준비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포함한 대안 실업률 지표를 만들어 공식 실업률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지표는 실업자 구분 문항 구조와 청년층의 구직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여성실업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엄격한 실업의 기준 하에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집단을 찾아내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특화된 실업 및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공식 실업률로는 실업의 구조와 추이에 있어서 남성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대안적인 실업률을 통해 여성실업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포괄하는 취업애로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망실업자, 경

계근로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실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취업에 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사실업 유형별 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자는 청년실업을 반영하고 있어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완전취업자 중에서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단순노무직과 같이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많았다.

결국 여성실업의 문제는 고질적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질 낮은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식실업자 뿐 아니라, 공식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 타겟팅이 필요하며 유사실업 및 확장실업에 포함되는 여성들 내에서도 분류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용 및 임시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영세한 자영업자와 같이 질 낮은 고용상태에 있는 집단은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확장된 실업의 범주 내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유사실업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 실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이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상황이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력단절기 여성의 질 낮은 고용상태와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자 범주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데, 남성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취업준비자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취업준비자와 실망실업자는 기존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 각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항로짓을 통해 유사실업(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유사실업 유형별 성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분석에 사용된 인구학적 변수(연령,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와 일자리 특성(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들은 공식실업자에 비해 유사실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이 공식실업과 유사실업에 따라 다르고, 즉 공식실업과 유사실업이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일수록 확률이 높아졌고 이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직이나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연령효과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0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확률이 높아졌다. 불완전취업자 결정요인에서 가장 큰 남녀의 차이는 학력의 효과인데, 여성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유사실업의 유형별로 다른 결정요인을 갖지만, 남

성과 달리 여성 유사실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사실업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학력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식실업을 둘러싼 유사실업 집단은 유형별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성별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실업 유형별 성별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IV

### 성별 유사실업과 경기변동성

1. 분석의 목적	89
2. 실업 및 유사실업의 동학	91
3.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92
4. 소결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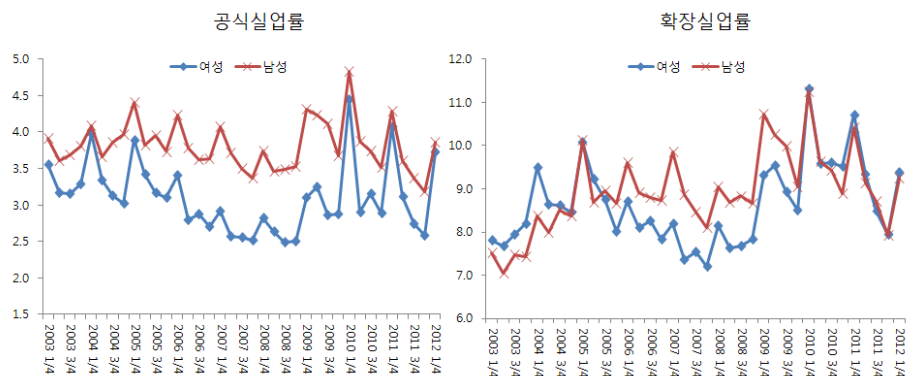
## 1. 분석의 목적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여성 실업률은 3.1%로 남성 3.6%에 비해 0.5%p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평균치도 여성 3.1%, 남성 3.9%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성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이 여성 고용상황이 남성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성별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차이는 상당부분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실업 상태를 거치지 않고 취업↔비경제활동 간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는 있지만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잠재실업자군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취업↔비경제활동으로 파악되는 이동의 상당부분이 불완전취업↔잠재실업간 이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여성의 고용상황은 공식실업 혹은 공식실업률의 추이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고 잠재실업자를 포함하여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 IV-1>은 2003년 이후의 성별 실업률 변동 추이와 유사실업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사실업자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를 지칭하며 각각의 범주는 황수경(2010)에 따라 정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공식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유사실업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004년 이전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지만 2005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성별로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여성의 경우 공식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사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성별 실업 동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 확장실업률은 잠재실업을 포함한 실업률이며, 잠재실업은 황수경(2010)에 따라 정의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IV-1] 실업률 변동의 성별 비교

한편, 공식실업률 수준은 지난 9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사실업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유사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유형의 유사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만으로 잘 파악되지 않는 여성 실업의 규모와 동태적 변화양상을 유사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경기변동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3절에서는 유사실업 범주를 포함하여 여성 노동공급 행태의 동학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특히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상태의 변화, 즉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성별 비교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실업 및 유사실업의 동학

실업과 유사실업이 경기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연구주제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Clark & Summers(1981)는 실업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전자는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실업으로의 상반된 이행 패턴이 나타나는 데에는 참가율의 변화가 주효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구계층별로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고령자, 여성 등에서 고용률 변화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경기변동 요소의 상당부분이 참가율 변화에 기인함을 보였다.

잠재실업의 구분이 주는 의미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있었다. Clark & Summers(1982)는 청년층의 노동력인구로의 유입/유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실업과 비경활 사이에 뚜렷한 이행패턴 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근거로 청년층에서 실업과 비경활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Flinn & Heckman(1983)은 탐색이론에 근거해 실업과 비경활 상태에서의 취업확률, 미취업기간 등을 비교한 결과, 청년층에서 두 상태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Clark & Summers(1982)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한편 Jones & Riddell(1999)은 실업(U)과 비경제활동(N)의 사이에 한계근로자 상태(M)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M과 N이 동질적인지, U와 M이 동질적인지를 이행확률(transition rat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근로자의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및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실업자보다는 낮고 비경활인구보다는 높으며, 비경활로의 이행확률은 실업자보다는 높고 비경활인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근로자 상태가 실업과도 다르고 비경제활동과도 다른 고유하고 유의미한 범주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공식실업을 외에 대안적 실업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일(2000:1)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자료로 구

축하여 항시 경제활동 참가자가 아닌 한계적 참가자의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이동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계적 참가자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고 여성, 청년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들에게 실업은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전환되는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하기 이전에 경제활동에 머무는 단계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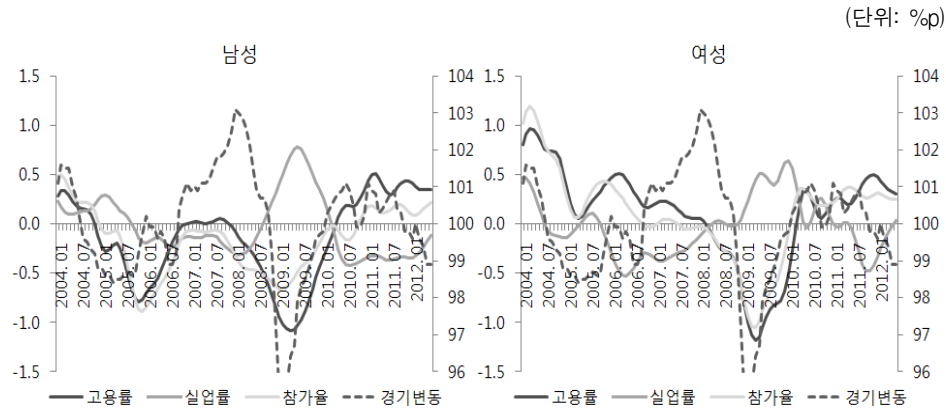
여성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이행패턴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가을(2006)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실업 외에, 비경제활동 상태를 두 개 하위 상태인 경제노동력과 순수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각 상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동학을 보이며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KLI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홍민기(2009)는 유사실업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노동력상태의 경기순환적 이행패턴을 분석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기 순행하면서 동행하는 특징을 보임을 밝혔다.

### 3.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 가. 경기변동과 고용지표의 변동 추이

실업은 경기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실업의 변동이 모두 취업의 증감에 의해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실직자가 증가해 실업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취업기회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구직자가 늘어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 실업이 감소하는 경우도 대칭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기변동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업률은 고용률에 비해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림 IV-2>는 2004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지표의 변동추이를 경기변동 추이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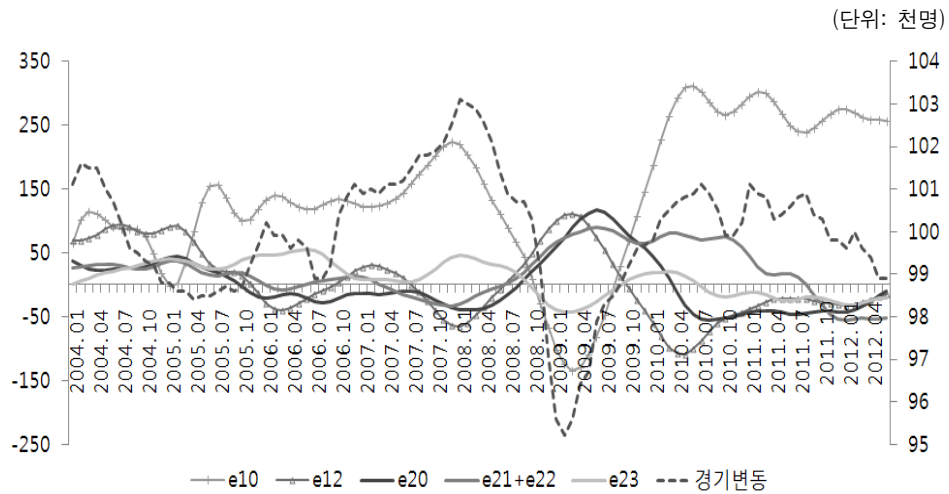
주: 경기변동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하고, 각 고용지표는 계절조정치를 이용한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IV-2] 경기변동과 고용지표의 변동 추이

경기변동에 동행하여 고용률이 등락하는 것만큼 실업률이 변동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간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남성에 비해 실업률 변동 폭이 적고 참가율 변동 폭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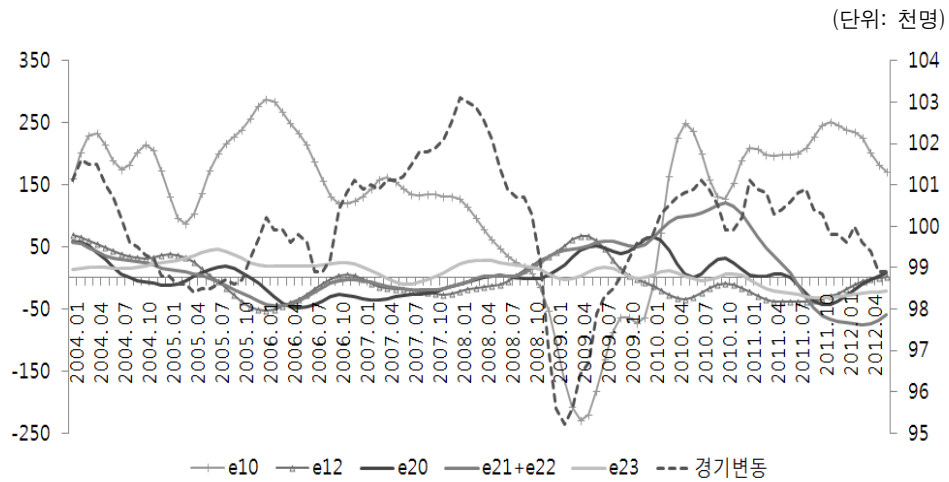
성별로 노동력상태를 유사실업자를 포함하는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IV-3>과 <그림 IV-4>이다.



- 주: 1. e10 완전취업자, e12 불완전취업자, e20 실업자, e21 실망실업자, e22 경계근로자, e23 취업준비자  
 2. 경기변동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함.  
 3. 각 노동력상태별 시계열은 계절조정 수치를 이용한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IV-3] 경기변동과 세부 노동력상태별 인구의 변화 추이(남성)



주·자료: 위 그림과 동일

[그림 IV-4] 경기변동과 세부 노동력상태별 인구의 변화 추이(여성)

남성의 경우 완전취업자의 변동 추이는 대체로 경기변동과 동행하여 움직이며 변동 폭에서도 개략적인 일치가 발견되는 반면 여성 완전취업자의 변동에서는 경기변동과의 동조성이 덜 뚜렷하다. 2005-2006년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취업자 증가가 있었는데, 교육관련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 시기에 여성의 경우 불완전취업, 실업, 잠재실업(취업준비자 제외)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07년에는 취업자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 완전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여성에서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조정 시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실업자와 유사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0년 들어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가 줄어들고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잠재실업자는 한동안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고용호조는 계속되어 완전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모든 유사실업자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체의 주5일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및 단시간근로자 증가로 인해 총수요 대비 취업자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황수경 외, 2011).

불완전취업자는 실업자보다 먼저 경기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완전취업의 정의상 평상시에는 정상취업자라 하더라도 불황시 일거리가 줄어 원하지 않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불완전취업 간, 완전취업과 불완전취업 간에 뚜렷한 동기(同期)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불완전취업자의 경기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취업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완전취업 형태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장에서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자가 다른 유사실업자와 이질적임을 보았는데,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에서도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불완전취업, 실업, 잠재실업(취업준비자 제외) 등은 경기변동에 대체로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취업준비자는 경기 순행적 변동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대기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취업준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취업준비자였던 자들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거나(불완전취업의 증가) 실망실업자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잠재실업의 증가).

이상에서는 고용지표의 경기변동성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좀 더 엄밀한 방법으로 실업 및 유사실업의 경기변동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 나. 실업 및 잠재실업의 경기변동 민감성

Clark & Summers(198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ln p_{it} = \beta_0 + \sum_{k=0}^K \delta_k UR_{t-k}^* + \beta_2 T + v_{it}$$

$$(2) \ln(1-u)_{it} = \alpha_0 + \sum_{k=0}^K \lambda_k UR_{t-k}^* + \alpha_2 T + v_{it}$$

식 (1)과 (2)는 참가율(p)과 실업률(u)을 총수요와 시간의 함수로 정의한 것이다.  $i$ 는 각 인구집단을 의미하는데, 성별 연령대별 인구그룹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총수요는 핵심노동력의 실업률을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 30-49세의 실업률을 이용한다.  $T$ 는 연도를 나타내는 추세변수이다.

이때 경기변동에 대한 참가율의 민감도는 식 (1)의 추정계수  $\delta$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gamma_i^p = - \sum_{k=0}^K \delta_k$$

같은 방식으로 실업률의 민감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gamma_i^{(1-u)} = - \sum_{k=0}^K \lambda_k$$

고용률(e), 실업률(u), 참가율(p) 간에는  $e = p(1-u)$ 의 관계가 존재하여  $\ln e = \ln p + \ln(1-u)$ 의 등식이 성립하므로,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률의 반응은 식 (1)과 (2)를 더한 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3) \ln e_{it} = \beta_0 + \alpha_0 + \sum_{k=0}^K (\delta_k + \lambda_k) UR_{t-k}^* + (\beta_2 + \alpha_2) T + \epsilon_{it}$$

따라서 고용률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amma_i^e = \gamma_i^p + \gamma_i^{(1-u)} = - \sum_{k=0}^K (\delta_k + \lambda_k)$$

즉 고용률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실업률과 참가율의 민감도로 분해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력상태에서 취업(E)과 실업(U) 외에 잠재실업( $U_h$ )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left( \frac{E}{N} \right) = \left( \frac{E + U + U_h}{N} \right) \cdot \left( \frac{E}{E + U + U_h} \right)$$

여기서  $E + U + U_h$ 는 잠재실업이 포함된 광의의 경제활동인구라 할 수 있으므로 고용률은 광의의 실업률( $u^*$ ), 광의의 참가율( $p^*$ )을 이용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e = p^* (1 - u^*)$ ). 따라서 광의의 실업률, 광의의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성×연령대별로 식 (1)과 식 (2)를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추출된 2003. 1월부터 2012. 6월까지의 각 고용지표의 월별 시계열자료이며, 총수요의 대리변수인 남자 30-49세의 실업률도 같은 자료에서 산출하였다. 식 (1), (2)의 추정에는 AR(1)의 자기회귀모형이 사용되었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기간은 1년, 즉  $K=11$ 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1>에 요약되어 있다.

통상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률 변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가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0.61)보다 여성(0.69)에서 참가율 변동의 영향이 크다. 또한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참가율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광의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실업률의 변동(0.94-0.95)이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노동력을 가정한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의 대부분이 실업과 잠재실업의 범주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통상의 실업률/참가율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실업보다 잠재실업이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IV-1> 인구계층별 고용지표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통상			광의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여성>						
15-29	2.58 (0.84)	0.48 (0.16)	3.06 (1.00)	-0.22 (-0.07)	3.25 (1.07)	3.04 (1.00)
30-39	0.03 (0.12)	0.23 (0.88)	0.26 (1.00)	-0.78 (-1.45)	1.32 (2.45)	0.54 (1.00)
40-49	0.48 (0.52)	0.45 (0.48)	0.93 (1.00)	0.24 (0.14)	1.45 (0.86)	1.70 (1.00)
50-64	0.94 (0.58)	0.68 (0.42)	1.62 (1.00)	-0.31 (-0.20)	1.87 (1.20)	1.56 (1.00)
65+	4.09 (0.68)	1.96 (0.32)	6.05 (1.00)	2.49 (0.38)	4.03 (0.62)	6.51 (1.00)
여성 계	1.53 (0.69)	0.68 (0.31)	2.21 (1.00)	0.13 (0.05)	2.33 (0.95)	2.47 (1.00)

	통상			광의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남성>						
15-29	4.45 (0.82)	1.00 (0.18)	5.45 (1.00)	1.60 (0.31)	3.56 (0.69)	5.16 (1.00)
30-39	0.99 (0.45)	1.22 (0.55)	2.21 (1.00)	0.20 (0.09)	1.95 (0.91)	2.15 (1.00)
40-49	0.71 (0.45)	0.85 (0.55)	1.56 (1.00)	0.13 (0.08)	1.41 (0.92)	1.54 (1.00)
50-64	0.61 (0.36)	1.10 (0.64)	1.71 (1.00)	-0.50 (-0.34)	1.97 (1.34)	1.47 (1.00)
65+	0.29 (0.19)	1.24 (0.81)	1.53 (1.00)	-2.09 (-1.25)	3.76 (2.25)	1.67 (1.00)
남성 계	1.65 (0.61)	1.06 (0.39)	2.71 (1.00)	0.15 (0.06)	2.43 (0.94)	2.58 (1.00)
전체	1.59 (0.65)	0.86 (0.35)	2.45 (1.00)	0.14 (0.06)	2.38 (0.94)	2.52 (1.00)

주: 1. 여성, 남성, 전체의 민감도는 각 인구계층의 인구비중을 이용한 가중평균으로 산출함.

2. ( )안은 고용률 변동에의 기여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위의 결과로부터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률 변화의 민감성에 대한 인구계층별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인구계층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heta_i = \frac{s_i \gamma_i^e}{\sum s_i \gamma_i^e}$$

<표 IV-2>는 고용률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인구계층별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성 청년층, 여성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경기변동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2〉 고용률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인구계층별 기여도

	15-29	30-39	40-49	50-64	65+	계
여성	0.16	0.01~0.02	0.04~0.07	0.06~0.07	0.18~0.19	0.46~0.50
남성	0.25~0.27	0.09~0.10	0.06~0.07	0.06~0.07	0.03	0.50~0.54

주: 두 모형의 고용률 변동치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한 것임.

## 다.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분석

앞서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보다는 유사실업자의 변동이 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기변동과 유사실업자를 포함한 노동력인구의 변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모형은 다음과 같다.

$$\ln_i L_{ijt} = \alpha_{ij} + \beta_{ij} BC_t + \gamma_{ij} T + v_{ijt}$$

$$\text{where } j = [e10, e12, e20, e21, e22, e23, e30]$$

여기서 L은 해당 노동력상태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i는 성, 연령으로 구분된 인구계층, j는 노동력상태 세부유형을 나타낸다. 노동력상태 유형 e10, e12, e20, e21, e22, e23, e30는 각각 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순수비경활인구를 나타낸다. BC는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변수로 여기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사용되었다. T는 연도별 추세변수이다.

자기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Yule-Walker의 자기회귀오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차수는 단계적 자기회귀 과정(stepwise autoregression)을 통해 결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노동력상태별 월별 인구수는 계절성분을 제거한 계절조정치의 로그값이 사용되었다.<sup>18)</sup>

<표 IV-3>은 여성과 남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된

18) 계절성분은 Census Bureau X-12-ARIMA Method에 의해 추출되었다.

관심은 경기순환지표의 계수인  $\beta$  추정치이다.

취업-실업-비경활로 구분하는 통상의 노동력상태 분류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취업은 경기에 순행하여 변동하고 실업은 경기에 역행하여 변동하지만 비경활의 경기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취업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순행하여 변동하지만 실업은 경기변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비경활에서 경기와 역행하는 변동성이 뚜렷하게 포착된다. 남성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여성에서는 취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뒷받침해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동력상태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중에서 완전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완전취업은 경기와 순행하여 변동하지만 불완전취업은 경기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기가 좋아지면 완전취업이 증가하고 불완전취업은 감소하며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완전취업이 줄어들고 불완전취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불완전취업의 변동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잠재실업으로 볼 수 있는 실망실업과 경계근로자는 실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에 역행하는 변동성을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수의 크기는 남녀 모두에서 경계근로자>실망실업>실업의 순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경기변동성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IV-3〉 성별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100)	추세 ( $\gamma$ *100)	R-sq	DW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100)	추세 ( $\gamma$ *100)	R-sq	DW
<노동력상태 3 분류>										
취업	9.38 ** (0.05)	0.08 * (0.05)	0.97 ** (0.04)	0.987	2.21	8.96 ** (0.09)	0.16 * (0.09)	1.01 ** (0.10)	0.976	1.98
실업	7.71 ** (0.56)	-1.47 ** (0.55)	0.55 (0.52)	0.662	2.11	5.93 ** (0.99)	-0.26 (0.98)	1.13 (1.09)	0.658	1.87
비경활	8.60 ** (0.13)	-0.17 (0.13)	1.70 ** (0.14)	0.984	1.93	9.37 ** (0.09)	-0.20 ** (0.09)	0.90 ** (0.08)	0.976	2.02
<노동력상태 상세 분류>										
완전취업	9.26 ** (0.06)	0.19 ** (0.06)	0.92 ** (0.06)	0.983	2.01	8.90 ** (0.08)	0.21 ** (0.08)	1.03 ** (0.11)	0.981	1.89
불완전취업	8.68 ** (1.45)	-3.14 ** (1.44)	0.63 (1.38)	0.863	1.93	8.85 ** (1.32)	-3.66 ** (1.32)	-1.34 (0.89)	0.774	1.75
실업	7.71 ** (0.56)	-1.47 ** (0.55)	0.55 (0.52)	0.662	2.11	5.93 ** (0.99)	-0.26 (0.98)	1.13 (1.09)	0.658	1.87
실망실업	6.63 ** (1.03)	-1.75 * (1.02)	6.13 ** (1.25)	0.960	1.70	7.16 ** (1.07)	-2.30 ** (1.06)	3.34 ** (1.47)	0.952	1.83
경계근로자	6.49 ** (2.32)	-3.36 (2.32)	8.98 ** (1.49)	0.845	2.18	8.49 ** (2.10)	-5.04 ** (2.09)	7.01 ** (1.95)	0.863	2.02
취업준비자	4.89 ** (0.80)	0.49 (0.80)	2.58 ** (0.98)	0.958	1.90	5.06 ** (0.82)	0.10 (0.82)	2.53 ** (0.93)	0.956	1.76
순수비경활	8.51 ** (0.15)	-0.17 (0.15)	1.49 ** (0.11)	0.973	2.15	9.34 ** (0.09)	-0.19 ** (0.09)	0.70 ** (0.08)	0.964	1.97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한편 취업준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부호를 보여 다른 잠재실업 유형과는 다른 경기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잠재실업을 제외한 순수비경활인구는 남녀 모두에서 음의 부호가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여성의 경우 순수비경활인구에

서도 경기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순수비경활상태에 있는 여성들도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에 유입/유출되는 인구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4>는 성,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성, 연령대별 회귀분석의 전체 추정결과는 부표에 수록하였다.

〈표 IV-4〉 성,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의 요약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취업	0.30	0.02	-0.02	0.17 **	0.31 *	0.37 **	0.01	0.005
실업	-0.99	-1.67 *	-3.12 **	-2.42 **	-0.75	-1.03	-0.74	-1.66
비경활	-0.18	-0.16	-0.95 **	-0.43 *	-0.22	-0.40 **	-0.30 **	0.02
완전취업	0.39 **	0.12	0.17 **	0.31 **	0.32 *	0.41 **	0.08	0.04
불완전취업	-10.25 **	-4.05 **	-3.92 **	-3.57 **	-6.06 **	-2.32	-5.81 **	-3.83 **
실업	-0.99	-1.67 *	-3.12 **	-2.42 **	-0.75	-1.03	-0.74	-1.66
실망실업	1.12	-4.97 **	-2.12	-3.13 *	-3.86 **	0.09	-2.70	-3.35 *
경계근로자	-1.44	-7.83 **	-5.08	-3.91	-7.55 *	-3.54	5.66	-3.26
취업준비자	0.45	2.45 *	-1.24	0.34	0.11	-2.35	-8.23 *	-
순수비경활	-0.21	-0.17	-0.61 *	-0.23	-0.21	-0.39 **	-0.24	0.10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 실업, 비경활로 파악되는 노동력상태별 인구 변동에서는 변화 방향은 예상과 일치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진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완전취업과 불완전취업의 경기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불완전취업이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완전취업과 불완전취업 외에도 실망실업과 경계근로자의 경기변동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에서 완전취업 및 불완전취업의 경기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노동시장에 안착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용관계가 덜 안정적인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성과 달리 여성 청년층에서 실망실업의 경기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망실업이 현재 노동시장 여건에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를 의미하므로 여성 청년층의 실망실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나빠질 때 여성의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30대의 경우는 완전취업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 모든 취업애로층의 경기변동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30대 연령에서 이미 취업한 남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상태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남성은 경기상황에 따라 취업애로층 내에서 노동력상태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30대까지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남성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취업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연령대의 취업준비자는 다른 취업애로층과는 반대로 경기에 순행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취업준비자가 경기와 순행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이들이 향후 취업기회가 바뀔 것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 30대에서는 모든 취업애로층의 경기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완전취업과 순수비경활의 경기변동성만 유의하게 파악되고 있다. 이 연령대 여성들에서 노동력 상태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 여건이기보다는 자녀양육 부담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경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상황을 계기로 한 취업↔비경활 간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40대 남성에서는 완전취업, 불완전취업, 실업, 순수비경활의 경기변동성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대의 남성 실직자가 잠재실업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 40대 여성에서는 불완전취업과 취업준비자의 경기변동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그룹의 취업준비자는 불완전취업자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역행하는 변동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이나 30대 남성에서의 취업준비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기가 나빠지면 이 연령대 여성에서 취업준비자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



러한 상황은 가장인 남편이 실직을 하였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부가노동자 효과).

50-64세 중고령층 남성의 경우 완전취업에서 경기순행의 변동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에서 경기역행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관찰된다. 남성 중고령층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 상황이 변동하기는 하지만 40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높아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만 상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불완전취업과 실망실업에서 경기역행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 4. 소결

이 글에서는 취업-실업-비경활의 노동력상태 구분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력상태를 다양한 유사실업자 범주를 포함하는 세부 유형으로 정의하여 유사실업자의 성별 특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반응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 변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가율이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참가율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참가율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의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실업률 변동이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노동력을 가정한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의 상당부분이 실업과 잠재실업의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취업-실업-비경활로 구분하는 통상의 노동력상태 범주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과 실업에서 경기변동성이 관찰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실업의 경기변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경활

에서 경기와 역행하는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주로 발생하지만 여성에서는 취업과 비경황 간의 이동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력상태 세부 유형별로 경기변동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완전취업과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 외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순수비경황 등은 경기변동에 역행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실업과 취업준비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여성의 경기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상태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40대 여성의 취업준비자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준비자와 달리 경기와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부가노동자 효과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여성의 노동력상태 이동의 동학 및 취업애로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공식실업률만으로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유사실업자의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상태 이동의 구체적인 동학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사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동학을 분석할 수 있다면 여성 경제활동참여행태를 이해함에 있어 보다 풍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V

## 여성의 실업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1. 선행연구	109
2. 자료구축 및 분석모형	113
3. 실업탈출과정	118
4. 미취업기간 분석	123
5. 소결	127

전장까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고 거의 완전실업률에 가까운 것은 실업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구직활동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공식실업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즉 우리나라 실업률 정의가 너무 좁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실망실업자, 과소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괄한 유사실업률의 기준을 적용하면 여성의 실업률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남성과의 격차도 사라지며 경기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본 장에서는 종단자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실제 노동력 상태가 취업, 실업, 비경황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갖고 이동하는지, 이행(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성의 실업탈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가용한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이다.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최근 자료 생산과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로서는 11차까지의(2008년) 노동패널자료가 가용한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가용한 분석기간 중 가장 최근연도인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연도까지 즉 2005년~2008년까지의 미취업기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자료 구축과정을 설명한 후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 1.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실업행태에 대한 동태분석은 IMF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촉발되었다. 분석자료로는 대체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의 월별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한 것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기간 동안의 노동이행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의 실업행태에 대한 동태분석이 드문 것은 실업연구에 대한 열기가 한 풀 꺾인 데다가 경제활동인구의 주기적인 표본 교체와 조사대상자 ID 공개 불가로 인

해 더 이상의 패널구축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이유일 듯하다.

김대일(2000)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를 붙여서 이행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장하거나 직접 취업하고 특히 이 경향은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신규취업이나 실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로는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왕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계적 참가자가 고용변화의 중심을 이룬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김대일(1999)<sup>19)</sup>은 IMF 금융위기 시점의 실직자들의 실업진입률 분석을 통해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여성실직자의 실업진입률은 10%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직자의 60% 이상이 실직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신규로 취업하는 인구 중 실업이란 경로를 거쳐 취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의 비중이 20% 미만임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업(적극적 구직)이 중요한 취업경로로서 작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즉 경황인구에서 이직을 경험하는 인구의 상당수가 취업과 비경황 간을 빈번히 왕래하는 인구라는 것이고, 실업이라는 경제활동 상태가 없는 한계집단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이 아닌 비고용상태에서의 노동력 상태 이동경로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윤희숙(2005)은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6월에서 2002년 12월까지의 월별패널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이동을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범주 1은 5년간 주36시간 이상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범주 2는 실업이나 노동시장 퇴출 없이 36시간 이상 노동과 36시간 미만 간을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한 경우, 범주 3은 노동시장 퇴출 없이 실업과 노동만을 이동하며 경제활동을 수행한 경우, 범주 4는 노동시장 퇴출을 한번이상 경험했으나 경제활동으로 다시 재진입한 경우, 범주 5는 5년 내내 비경제활동에 머문 경우이다. 기본범주는 내내 주36시간 이상 노동한 범주 1로 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을 수행했다.

19) 김대일(2000:15)에서 재인용

그 결과, 비경활→취업으로의 이동경로와 실업→취업으로의 이동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여성과 저연령, 저학력 집단은 비경활→취업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들은 실업을 경험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자체를 떠났다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업하는 경로를 선호한다.

외국에서는 이동성(turnover rate)의 남녀차이가 주로 저학력 여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Royalty(1998)는 저학력 여성이 남성근로자와 이동성에서 다른 행태를 보임을 실증하였다.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는 비경제활동에 대해 여성은 남성과 다른 선호체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선호체계가 남성의 것과 유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학력층이 퇴직시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쉽게 빠져나가는 반면 고학력인구는 실업에 머무는 경향이 뚜렷하나 여성집단의 경우에는 학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희숙, 2005). 고학력 여성도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자리잡는다. 아울러 여성실직자 대책에서 실직자의 학력이 큰 의미를 갖기 못하고, 기존 실업대책보다는 경제활동증진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재취업확률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안중범 외 2002, 강철희 2004), 재취업확률에 유의한 변수는 연령, 학력, 근속기간, 건강보험가입여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근속이 길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남성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장지연 외(2001)는 1998~99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취업과 미취업간 이동을 분석했는데 미취업집단을 실업,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어떤 요인이 노동이동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여성은 실업→취업으로의 이동 경로나 실업상태에 계속 머무를 확률이 남성보다 낮아 경제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활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경계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여성의 경우 실업이나 비임금근로 상태로의 이행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으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 여성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남성보다도 높은 예상치 못한 결과도 보였다. 이로부터 실업 또는 비경활상태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에게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실업률은 여성의 취업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가을(2006:30-31)은 비경제활동상태를 경계노동력 상태와 순수비경활상태로 나누고 1998~2004년까지의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노동력 상태 이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경계노동력의 경우 취업으로의 이행에서 실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별로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였다. 많은 여성들이 “저숙련·저임금등 2차 노동시장 내에서 비경활과 취업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 노동시장은 고용보험 등 제도적 장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으로 채용과 계약해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크지 않다.<sup>20)</sup> 또한 이 시기에 순수비경활자의 취업증가율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역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집단은 경계노동력 상태나 실업을 거치기보다는 곧장 취업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고용증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데 있어 “구직활동, 취업의사도 없다고 알려진 순수비경제활동집단이 오히려 잠재인력으로서 상대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뿐 아니라 비경활집단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노동인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유효해진다.

20)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한계근로자들이 실업률을 낮추고 인력수급의 완충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2. 자료구축 및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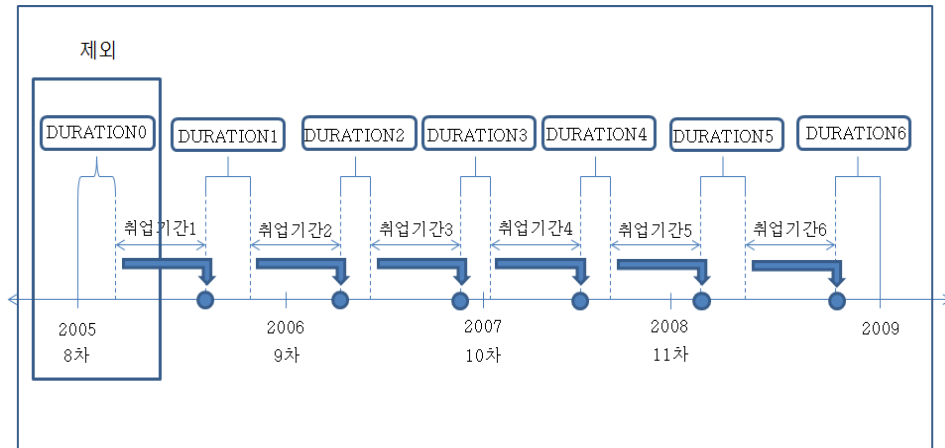
### 가. 자료구축

노동패널자료는 크게 개인자료, 가구자료 및 직업력 자료로 구성되는데 본고는 직업력 자료를 분석한다. 직업력(work history) 자료에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종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는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억력에 의존하는 과거 일자리 정보는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는 1차 조사 시점 이후 추적하여 모아진 일자리 정보를 활용할 것이다. 본고가 관심을 갖는 주제, 즉 미취업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탈출하고, 어떤 요인들이 탈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취업상태기간(non-employment state spell)을 가려내야 한다.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연도까지(2005년~2008년)의 기간 중에 미취업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즉 내내 취업상태인 사람이거나 내내 미취업 상태인 사람을 제외하고 또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총 5,425개의 미취업상태(스펠)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005년 이전에 미취업상태가 발생하여 2005년 이후로 이어진 경우는 좌측 단절(Left Censoring)로서 총 981개에 이른다. 이 스펠들은 기간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정보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시키고 결국 4,444개의 스펠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반면 미취업상태가 우리의 분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08년 12월 이후까지 계속되는 우측 단절(Right Censoring) 사례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고는 기간분석을 위해 미취업기간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미취업이 발생하기 직전의 변수(개인 및 가구특성, 직업적 특성 등)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측 단절의 경우와는 달리, 우측 단절의 경우 이들 변수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V-1] 분석대상이 되는 미취업 스펠

## 나. 기술통계

2007년 조사 대상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754명, 6,101명이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자가 70.2%이고 실업자가 2.0%, 비경제활동상태가 27.9%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62.3%를 차지하고 취업자가 45.2%, 실업자가 1.6%이다. 남녀 모두 실업률이 2% 이하로 동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한 결과인데, 공식 실업률을 산출하기 위한 질문문항을 엄격히 따라갈 경우 실업자는 매우 적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는 대부분 30세 미만의 청년층이거나 50세 이상의 연령층인데 반해 여성은 30~49세 층의 비중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4.7%에 이른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사와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원과 비교하여 가구주일 때 취업자 비중이 높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이 경향이 남성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배우 여성집단에서 취업자 비중이 44.4%인데 반해 무배우 여성집단에서는 29.8%로 낮는데 이것은 무배우 여성의 대부분이 사별한 고령 여성일 가능성을 대변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집단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집단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 집단에서 보다 낮다.

〈표 V-1〉 2007년 조사당시 성별, 경제활동별 인구배경 분포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6101 (100.0)	2527 (45.2)	89 (1.6)	3485 (62.3)	5754 (100.0)	3864 (70.2)	143 (2.0)	1747 (27.9)
연령	15~29세	1406 (100.0)	516 (36.7)	35 (2.5)	855 (60.8)	1359 (100.0)	444 (32.7)	50 (3.7)	865 (63.6)
	30세~49세	2383 (100.0)	1280 (53.7)	38 (1.6)	1065 (44.7)	2458 (100.0)	2224 (90.5)	57 (2.3)	177 (7.2)
	50세 이상	2312 (100.0)	731 (31.6)	16 (0.7)	1565 (67.7)	1937 (100.0)	1196 (61.7)	36 (1.9)	705 (36.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587 (100.0)	834 (32.2)	21 (0.8)	1732 (67.0)	1650 (100.0)	799 (48.4)	27 (1.6)	824 (49.9)
	고졸	1716 (100.0)	812 (47.3)	30 (1.7)	874 (50.9)	1709 (100.0)	1356 (79.3)	56 (3.3)	297 (17.4)
	전문대 이상	1798 (100.0)	881 (49.0)	38 (2.1)	879 (48.9)	2395 (100.0)	1709 (71.4)	60 (2.5)	626 (26.1)
혼인 상태	미혼	1337 (100.0)	543 (40.6)	37 (2.8)	757 (56.6)	1754 (100.0)	718 (40.9)	71 (4.0)	965 (55.0)
	유배우	3715 (100.0)	1649 (44.4)	43 (1.2)	2023 (54.5)	3675 (100.0)	2956 (80.4)	57 (1.6)	662 (18.0)
	무배우	1006 (100.0)	300 (29.8)	9 (0.9)	697 (69.3)	287 (100.0)	156 (54.4)	14 (4.9)	108 (37.6)
가구 주 여부	가구주	1019 (100.0)	466 (45.7)	14 (1.4)	(539) (52.9)	3967 (100.0)	3150 (79.4)	69 (1.7)	748 (18.9)
	가구원	5082 (100.0)	2061 (40.6)	75 (1.5)	2946 (58.0)	1787 (100.0)	714 (40.0)	74 (4.1)	999 (55.9)
고등 자녀 여부	유자녀	2,678 (100.0)	1,033 (38.6)	31 (1.2)	1,614 (60.3)	2,482 (100.0)	1,831 (73.8)	33 (1.3)	618 (24.9)
	무자녀	3,418 (100.0)	1,491 (43.6)	58 (1.7)	1,869 (54.7)	3,267 (100.0)	2,029 (62.1)	110 (3.4)	1,128 (34.5)

주: 혼인상태별 분포에서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사례(남 38명, 여 53명)를 제외함.

### 다. 분석모형

첫 번째 연구문제는 1년의 기간 동안에 여성의 노동력 상태가 어떻게 이행하는지 경로를 파악하고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남성 과 비교하여 밝히려는 것이다. 노동력 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누고, 분석기간은 가용자료의 가장 최근년도인 2007~2008년이다. 세 개의 상태를 가정하므로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행하는 경로는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아니면 나머지 두 개 중 한 개로 상태로 전환하든지 하나를 택해야 하므로(competing risks)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2005-2008년간 4년의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어떠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전이율(hazard rate) 개념을 도입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한다.

#### ▶ 다항로짓분석

다항로짓모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text{logit}_{ij} = \log[\pi_{ij}/\pi_{ij}]$$

이 분석모형에서 i는 설명변수의 변수값이고 j는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이다. 예컨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상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면, 어떤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변수값=3)로 있지 않고 취업자의 상태로 있을(변수값=1)의 가능성은

$$\text{logit}_{i1} = \log[\pi_{i1}/\pi_{i3}]$$

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상태(변수값=3)로 있지 않고 실업자로 나타날(변수값=2) 가능성은

$$\text{logit}_{i2} = \log[\pi_{i2}/\pi_{i3}]$$

로 표시할 수 있다. 다항로짓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은

$$\log i t_{ik} = \alpha_{ik+x_i} + \beta_k$$

이다. 여기서  $\alpha_{ik}$ 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beta_k$ 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설명변수를 위해 가용변수를 최대한 발굴하여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여부, 가구주여부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 ▶ 사건사분석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주로 어떤 사건(event)의 전이율(hazard rate)이다. 전이율이란 어느 시점까지 사건(event)을 겪지 않는 사람들(또는 표본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jk}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 + \Delta t)}{\Delta t}$$

여기서  $P_{jk}(t, t + \Delta t)$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 + \Delta t$  시점에서  $k$ 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사건사분석의 기본적인 모형은 전이율이 시간의 흐름과 각 표본의 관찰된 특성들에 따라 설명되는 것으로 본다. 즉,

$$r(t | x_i(t)) = q(t) \exp(b_{1i}x_{1i}(t) + b_{2i}x_{2i}(t) + \dots)$$

여기서  $q(t)$ 는 시간의 흐름이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부분이며,  $x_i(t)$ 는 각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은 출발점(origin)과 종착점(destination)에서 상태변화가 있는지 즉 미취업기간에서 취업기간으로 변화하는지, 이 과정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3. 실업탈출과정

먼저 2007년도 조사시점에서의 노동력 상태가 1년 후(2008년) 동일한 상태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상태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본 후, 이행확률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노동력 상태변화를 보면, <표 V-2>에서 보듯이 2007년 취업자 중에서 2008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중은 남성에서 93.4%, 여성에서 87.2%이다. 2007년에 취업상태였지만 1년 뒤에 비경제활동상태로 노동시장을 나간 비율은 여성과 남성에서 각각 11.5%, 4.8%이다. 실업자 상태인 비율은 여성과 남성에서 각각 1.3%, 1.9%로 실업상태로의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실업률이 남녀 모두 2%를 넘지 않는다. 절대규모가 작아 실업행태와 이행과정에서 유의미한 경향을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면, 남성의 경우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이 23.0%이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비율이 37.0%이나, 여성실업자들의 경우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이 남성의 절반 수준인 12.1%이고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비율이 51.5%이다. 여성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것이다. 한편 실업탈출률, 즉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률은 여성이 36.4%로 남성에 비해(40.0%) 약간 낮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년 후에도 비경제활동상태인 비율이 남녀 각각 87.1%, 91.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이나 실업상태로 이동한 비율은 남성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집단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취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1년 뒤에 비경제활동상태가 되고, 여성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뒤에 비경제활동상태가 된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이나 실업으로 상태 이동하는 비율은 10%가 안 된다. 이 결과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y)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역방향의 이행 비율과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상태간 비대칭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비경제활동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이 훨씬 활발하며 이 경향은 여성집단에서 더 강한 것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표 V-2〉 2007년 미취업자의 2008년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단위: 명, %)

	2008년 여성				2008년 남성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2007년 전체	5588 (100.0)	2315 (41.4)	75 (1.3)	3198 (57.2)	5130 (100.0)	3353 (65.4)	121 (2.4)	1456 (28.4)
취업자	2341 (100.0)	2041 (87.2)	30 (1.3)	270 (11.5)	3598 (100.0)	3359 (93.4)	67 (1.9)	172 (4.8)
실업자	66 (100.0)	24 (36.4)	8 (12.1)	34 (51.5)	100 (100.0)	40 (40.0)	23 (23.0)	37 (37.0)
비경활	3181 (100.0)	250 (7.9)	37 (1.2)	2894 (91.0)	1432 (100.0)	154 (10.8)	31 (2.2)	1247 (87.1)

2007년 조사 당시 취업자였던 사람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가 <표 V-3>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대신 취업자로 남거나 실업자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가구 주일 때 비경활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닌 실업자로 전환할 확률도 높아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연령변수도 설명력을 갖는데, 비경제활동상태로 나가지 않고 계속 취업자로 남을 확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30~49세의 중장년층일 경우 높고, 또 5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비경제활동상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보다는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변수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사별한 경우보다 유배우인 경우 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실업자로 남을 확률은 미혼자 집단에서 높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3〉 2007년 취업자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변수명	logit(a/c)	logit(b/c)
상수	1.30(0.26)***	-4.14(0.75)***
성별		
남성(=1)	0.60(0.15)***	0.68(0.35)*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57(0.16)***	0.45(0.37)
연령(50 이상)		
연령(15-29=1)	0.23(0.24)	0.18(0.65)
연령(30-49=1)	0.51(0.16)**	0.84(0.47)*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1)	0.14(0.18)	0.64(0.45)
고졸(=1)	0.02(0.13)	0.75(0.32)**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1)	0.23(0.29)	1.57(0.75)**
유배우(=1)	0.36(0.20)*	0.20(0.59)
자녀 있음	0.21(0.15)	0.59(0.39)
n = 5,868		
-2 Log likelihood = 3578.9464		

주: a:취업자 b:실업자 c:비경제활동

\*\*\*p<.001 \*\*p<.05 \*p<.10

2007년 조사 당시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2008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V-4>와 같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대신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실업자로 남을 확률도 높다. 가구주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해 2007년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5~29세의 청년층이거나 30~49세의 장년층일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지 않고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변수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다만 고졸 미만의 저학력 실업자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부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여부는 별다른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2007년 실업자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변수명	logit(a/c)	logit(b/c)
상수	-0.58(0.85)	-4.06(2.04)**
성별		
남성(=1)	1.01(0.43)**	1.23(0.5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15(0.53)	0.61(0.77)
연령(50 이상)		
연령(15-29=1)	0.49(0.83)	3.03(1.31)**
연령(30-49=1)	0.93(0.56)*	1.90(1.01)*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1)	-0.77(0.55)*	-0.20(0.81)
고졸(=1)	-0.16(0.46)	0.54(0.58)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1)	-0.09(0.88)	0.16(1.27)
유배우(=1)	0.11(0.58)	-0.01(0.96)
자녀 있음	-0.04(0.47)	0.05(0.68)
n=196		
-2 Log likelihood = 353.1414		

주: a:취업자 b:실업자 c:비경활

\*\*\*p<.001 \*\*p<.05 \*p<.10

마지막으로 2007년 조사 당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2008년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V-5>와 같다. 여기서는 성별이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게 되면 취업자나 실업자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가구



주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아져, 가구주일 때 취업자든 실업자든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연령이 15~29세의 청년층이거나 30~49세의 장년층일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실업자가 될 확률도 높다. 학력의 경우 고졸 미만의 저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에 비해 미혼 및 유배우일 때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표 V-5〉 2007년 비경제활동인구의 2008년 경제활동상태

변수명	logit(a/c)	logit(b/c)
상수	-3.64(0.29)***	-4.66(0.60)***
성별		
남성(=1)	0.02(0.13)	0.41(0.28)
가구주 여부		
가구주(=1)	1.13(0.16)***	1.23(0.38)**
연령(50 이상)		
연령(15-29=1)	1.40(0.26)***	1.07(0.62)*
연령(30-49=1)	1.62(0.30)***	1.28(0.48)**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1)	-0.96(0.165)***	-1.28(0.37)***
고졸(=1)	-0.03(0.13)	-0.05(0.31)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1)	1.00(0.33)**	0.54(0.64)
유배우(=1)	0.67(0.35)**	-0.48(0.47)
자녀 있음	-0.61(0.13)***	-0.54(0.33)*
n = 4,654		
-2 Log likelihood = 3241.028		

주: a:취업자 b:실업자 c:비경제

\*\*\*p<.001 \*\*p<.05 \*p<.10

본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에 취업자였던 사람의 경우, 여성은 취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2007년에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의 경우, 여성은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이처럼 여성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자나 실업자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상태이행에 대해서는 성별 변수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4. 미취업기간 분석

노동패널 8차에서 11차(2005년에서 2008년)까지 총 4년간의 직업력 자료를 연결하여 미취업기간(non-employment spell)을 추출하여 미취업기간의 역수인 탈출률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추정하였다. 자료 구축과정과 모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아쉬운 점은 직업력 자료에서는 실업기간과 비경제활동기간으로 나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실업기간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상태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2개 상태만 있는 것으로 자료를 구축했다. 엄밀한 실업기간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조사 대상자의 실업률이 남녀 각각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업기간을 분리해낸다 해도 분석가능한 수준으로 집계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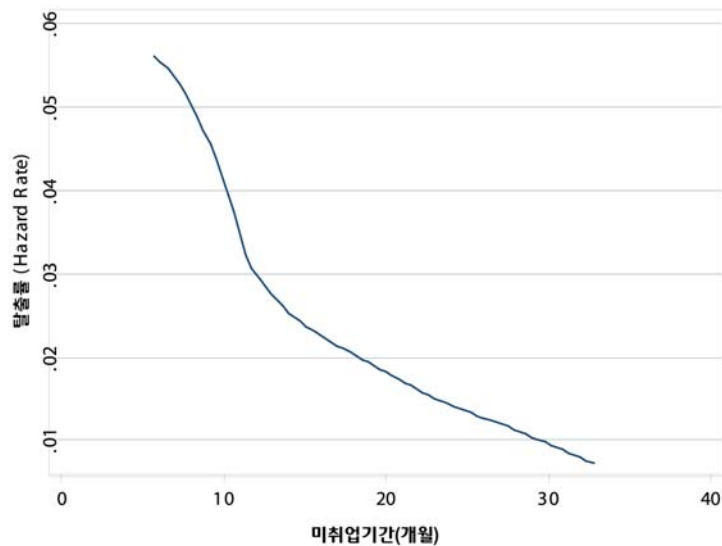
본장 제2절의 자료구축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미취업기간은 모두 4,444개였다. 이 중에서 1,375개는 2008년 조사시점까지 미취업이 지속되다가 관찰이 중단된 우측절단치(right-censoring)이며, 나머지 3,069개는 구직에 성공하여 미취업상태를 탈출한 사례이다. 분석대상이 된 미취업 스펬의 평균 지속기간은 10.2개월로 나타났다.

〈표 V-6〉 분석에 포함된 미취업 스펠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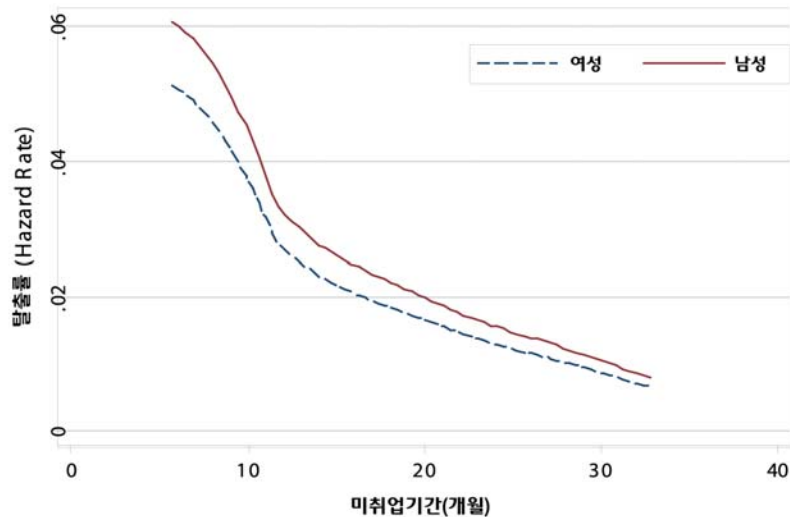
탈출경로	스펠 수	평균지속시간 (개월)	최소값 (개월)	최대값 (개월)
미취업 지속	1,375	10.2	1.0	47.0
구직	3,069			

<그림 V-2>는 2005년에서 2008년의 기간에 발생한 미취업 상태에서 탈출률(hazard rate)을 미취업기간의 매 개월마다 제시한 것이다. 즉 탈출률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들의 설명력에 대한 모수 추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미취업기간별로 탈출률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V-3>은 남녀를 나눠 탈출률을 제시한 것이다. 남녀 모두 실직 후 10개월까지는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개월을 넘어서게 되면 미취업 탈출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0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노동력 활성화(labor activation)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의 탈출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실직 초기기간에 남성의 미취업 탈출이 상대적으로 현저하다.



[그림 V-2] 미취업기간 탈출률



[그림 V-3] 남성과 여성의 미취업기간 탈출률

<표 V-7>은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직장의 특성 등이 탈출률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Co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미취업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성별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가구원에 비해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확률이 높다. 15-29세 청년층과 30-49세 장년층 미취업자는 50세 이상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크다. 그러나 학력과 유배우 여부는 미취업기간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취업 탈출률이 높아지는데, 만약 여성만을 대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자녀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일수록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을수록 미취업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전 직업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닌 경우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주이든 상용직이든 임시직이든 모두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미취업기간 탈출률이 유의미하게 높는데 특히 상용직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V-7〉 실업 탈출률 결정요인 추정 결과(Cox 모형)

	coefficeint	표준오차	Hazard Rate
성별 남성(=1)	0.19***	0.04	1.2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33***	0.05	1.39
연령(50세 이상)	0.53***	0.08	1.71
15세 ~ 29세(=1)	0.68***	0.06	1.98
30세 ~ 49세(=1)			
학력(전문대졸 이상)	0.05	0.06	1.06
고졸(=1)	0.03	0.04	1.03
고졸 이상(=1)			
혼인상태(이혼사별)	0.10	0.10	1.10
미혼(=1)	-0.03	0.07	0.97
유배우(=1)			
고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자녀 있음(=1)	0.17**	0.06	1.19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1)	0.19***	0.05	1.20
실업급여 신청여부 신청(=1)	-.54***	0.08	0.58
종사상급 지위(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1)	0.25***	0.05	1.28
임시직(=1)	0.12**	0.06	1.13
일용직(=1)	0.21**	0.07	1.23
고용주/자영업자(=1)	0.20*	0.08	1.22
스펠수	4,444		
log-likelihood	-24331.744		

## 5. 소결

전장까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고 거의 완전 실업률에 가까운 것은 실업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구직활동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공식실업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즉 우리나라 실업률 정의가 너무 좁은데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노동력 상태 변화라는 동태분석을 수행했다. 종단자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실제 노동력 상태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갖고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동 경로와 이행(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였다.

노동패널자료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에 취업자였던 여성은 2008년에 취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2007년에 실업상태에 있던 여성은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즉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해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패널자료의 2005년~2008년까지 직업력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non employment spell)를 모아서 미취업 탈출률(hazard rate)을 추정하였다. 미취업 탈출률은 남녀 모두 실직 후 10개월까지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개월을 넘어서게 되면 미취업 탈출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 결과는 10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노동력 활성화(labor activation)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의 탈출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실직 초기기간에 남성의 미취업 탈출이 상대적으로 현저하다.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직장의 특성 등이 탈출

률에 미치는 영향을 Co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형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미취업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본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과 미취업으로 이원화한 상태이행 분석결과에 그쳤다.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경로로의 이행 가능성(competing risks)을 추정한 결과가 가져올 섬세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미취업 상태를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눌 수 없어, 본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의 실업탈출 행태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도 본 분석의 한계이다.

그렇지만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또한 이어진 동태분석을 통해 여성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므로 남성 근로자를 표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력 활성화 정책과 실업정책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여성의 제약요인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VI

## 요약 및 정책시사점



공식 실업률이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인력활용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본고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여성실업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성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의 실업정책 틀로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행 실업대책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활성화(labor force activation) 전략의 대상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구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구직자, 즉 실업자에 맞춰져 있다. 많은 여성인력은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저활용 상태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 속에서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남성과 대비한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것이다. 공식실업률 지표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망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도록 실업률 지표를 확장하였고 이 새 지표 즉 ‘유사실업률’로 여성실업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도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연단계 논의들

과소고용된 인력의 규모와 관련 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학술적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 이들은 정의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여 종종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놓고 실업자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력과소활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공식실업자뿐 아니라 과소고용자(고용과 실업의 경계에 위치하는) 및 실망실업자 또는 잠재실업자(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위치하는)를 합한 개념으로 분석할 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소고용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고용을 완전고용으로 간주하게 되면 노동력의 과소활용을 과소평가하는 한편, 고용증가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특정시기의 고용 증가가 과소고용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체로 여성들이 이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량 그리고 여성고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과소활용률(underutilization rate)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들은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 실업률과 새 지표인 과소고용률 간 격차가 여성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측정치에서는 인력활용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여성 실업률이 2007년 6%에서 2009년 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5.5%에서 6.3%로 증가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이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누가 더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불경기의 초기 단계에는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금융, 제조업, 건설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성들의 실업률을 높였지만 불경기 여파가 여성이 주로 고용된 서비스 분야로 파급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연구에서 공식실업률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한층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또한 늘 최저수준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3.5%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최저수준인데, 그렇다면 고용률은 최고가 될 법한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로 OECD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6.8%)도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제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는 「2012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률을 넘어 여성 잠재인력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지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 ▶ 성별 실업률 주이 및 실업자 특성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실업률

은 남성보다 낮은 2~3% 수준을 유지한다. 경제위기 시점에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다지 큰 폭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남녀 실업률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구직 기간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분석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에 취업준비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공식 실업률로는 실업의 구조와 추이에 있어서 남성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대안적인 실업률을 통해 여성실업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포괄하는 취업애로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망실업자, 경제근로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실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사실업 유형별 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자는 청년실업을 반영하고 있어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완전취업자 중에서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단순노무직과 같이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많았다.

둘째,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유사실업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 실

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이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상황이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력단절기 여성의 질 낮은 고용상태와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자 범주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데, 남성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취업준비자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취업준비자와 실망실업자는 기존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 각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항로짓을 통해 유사실업(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유사실업 유형별 성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분석에 사용된 인구학적 변수(연령,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와 일자리 특성(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들은 공식실업자에 비해 유사실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실업과 유사실업이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일수록 확률이 높아졌고 이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직이나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연령효과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0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확률이 높아졌다. 불완전취업자 결정요인에서 가장 큰 남녀

의 차이는 학력의 효과인데, 여성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유사실업의 유형별로 다른 결정요인을 갖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 유사실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사실업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학력의 효과가 남성에게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식실업을 둘러싼 유사실업 집단은 유형별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성별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실업 유형별 성별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 유사실업을 지표로 분석한 실업 동향

여성의 공식실업률이 남성에게 비해 낮는데 이것이 여성 고용상황이 남성에게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성별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차이는 상당부분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공식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사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성별 실업 동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식실업률 수준은 지난 9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사실업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유사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유형의 유사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취업-실업-비경활의 노동력상태 구분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력상태를 다양한 유사실업자 범주를 포함하는 세부 유형으로 정의하여 유사실업자의 성별 특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반응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력상태 이동의 동학 및 취업애로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공식실업 및 공식실업률만으로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유사실업자의 파악이 필수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 변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가율이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참가율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참가율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의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실업률 변동이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노동력을 가정한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의 상당부분이 실업과 잠재실업의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취업-실업-비경활로 구분하는 통상의 노동력상태 범주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과 실업에서 경기변동성이 관찰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실업의 경기변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경활에서 경기와 역행하는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주로 발생하지만 여성에서는 취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력상태 세부 유형별로 경기변동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완전취업과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외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순수비경활 등은 경기변동에 역행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실업과 취업준비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여성의 경기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상태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40대 여성의 취업준비자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준비자와 달리 경기와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부가노동자 효과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 여성의 실업 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이제까지의 횡단적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력 상태 변화라는 동태분석을 수행했다. 종단자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실제 노동력 상태가 취업, 실업, 비경활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갖고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동

경로와 이행(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였다.

노동패널자료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에 취업자였던 여성은 2008년에 취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2007년에 실업상태에 있던 여성은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즉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하면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패널자료의 2005년~2008년까지 직업력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non-employment spell)를 모아서 미취업 탈출률(hazard rate)을 추정하였다. 미취업 탈출률은 남녀 모두 실직 후 10개월까지는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개월을 넘어서게 되면 미취업 탈출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0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노동력 활성화(labor activation)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의 탈출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실직 초기 기간에 남성의 미취업 탈출이 상대적으로 현저하다.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직장의 특성 등이 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Co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형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미취업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 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본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과 미취업으로 이원화한 상태이행 분석결과이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경로로의 탈출 가능성(competing risks)을 추정한 결과가 가져올 섬세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또한 미취업 상태를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눌 수 없어, 본고가 알고자 하는 여성의 실업탈출 행태분석을 엄밀하게 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그렇지만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또한 이어진 동태분석을 통해 여성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므로 남성 근로자를 표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력 활성화 정책과 실업정책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여성의 제약요인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 정책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는 사실은 여성의 실업실태가 기존의 실업률 지표틀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인력의 저활용 실태를 포착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시도한 ‘유사실업률’과 같은 새 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여성실업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여성 잠재실업자를 포괄하도록 실업정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수행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잔존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이라고 정의한 후, 이러한 비활동성 함정이 상당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단을 찾으려 고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함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취업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가(activate)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이 비활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도입한 한계소득세 감소, 근로연계수당의 도입, 미취업상태시 수당 제한 등의 근로유인 증대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실직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실망실업자화 됨으로써 아예 실업대책의 대상집단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활동성 함정을 겨냥한 정책보다는 여성과 같은 경계실업자군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여 구직활동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직업알선 서



비스의 전달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의 지체로 실업이 장기화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업정책의 외연 확대는 단지 여성만을 수혜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넓은 범주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실업대책이 포괄적인 고용전략의 맥락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고용 증가,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때 핵심이 되는 정책대상은 실업자를 넘어 실망실업자 등 잠재인력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여성에게 실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공급 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가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직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실업(공식 구직활동)의 단계 없이 곧장 취업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낮은 것을 반영하는데,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이유는 아마도 실업의 가치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직업탐색이론에 기반을 둔 실업모형은 한 개인이 실업(구직), 취업, 비경제활동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은 각 선택이 가져다 줄 효용가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직업탐색이론에서 상정하는 것과 같은 비경제활동상태와 취업 사이의 중간단계로서 실업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의 가치는 제시된 임금과 근로환경에 의해, 비경제활동상태의 가치는 여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실업의 가치는 구직비용과 취업가능성이라는 선택가치(option valu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김대일, 2000:50).” 여기서 구직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취업정보의 희소성 등 시장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 이외에도 실업보험 및 복지정책 등 제도적 요인이 포함된다. 그런데 여성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취약계층으로서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실업의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실직시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실업자 지원 서비

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식 부문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의 실업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실업률의 보조지표로서 새 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래 실업률은 노동공급의 과소활용(*underutilized labour supply*)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이다. 급변하는 고용구조 속에서 실업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항에 매여 실업률이 과소 추정됨으로써 인력활용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취업자 중에서 현재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취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즉 부분실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 이외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즉 불완전 취업자는 2012년 3월 현재 121만 명에 육박하여 전년동월 대비 무려 3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저성장이 예견되고, 실업문제가 상시화, 구조화될 전망이다도 공식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적절한 정책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률에 대한 표준 정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별도의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실업자집단을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다섯 가지 대안적 실업지표를 개발하여 매월 고용지표 발표 시 함께 공표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도 대안적 실업지표를 개발·활용하고 있다(박기현, 2012). 사실 실업률에 대한 표준 정의가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집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ILO, 2010:25).

우리나라는 아직 보조지표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동향 발표 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내지 불완전취업자나 구직단념자 등 활동상태별 비경제 활동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식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착도 및 실

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실망실업자, 불안전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했고 이 지표를 사용하여 실업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경기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특히 여성 잠재실업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가 새 실업률 지표로서 제안한 ‘유사실업률’ 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돕고 적절한 정책설계를 견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미국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실업자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ILO는 실업률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노동 저활용 지표 등 보조지표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ILO는 2013년 제19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고용보조지표의 국제 표준 채택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편승하여 저성장 시대에 실업이 상시화 및 구조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실업대책의 질을 높이는 정책인프라로서 실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zmat, G. Maria Guell and Alan Manning (2004), *Gender Gaps in Unemployment Rates in OECD Countries*,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Cain, Glen G. (1967), “Unemployment and th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Secondary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20, No.2, January.
- Clark, Kim B. and Lawrence H. Summers (1981), Demographic Differences in Cyclical Employment Vari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6, No. 1, pp. 61-79.
- Flinn, Christopher J. and James J. Heckman (1983), “Are Unemployment and Out of the Labor Force Behaviorally Distinct Labor Force Stat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 No. 1, pp. 28-42.
- ICLS (1998),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Geneva, Switzerland: ILO.
- ILO (2010), *Women in labour markets: Measuring progress and identifying challenges*, Geneva, Switzerland: ILO.
- ILO (2009), *Trends Econometric Models*, 2009 November.
- ILO (2009), “Asia in the global economic crisis : Impacts and responses from a gender perspective”, *Technical note*, 2009 February.
- ILO (2008), *Beyond Unemployment : Measurement of Other Forms of Labour Underutilization*, 2008 December.
- Jones, Stephen R. G. and W. Craig Riddell (1999),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 Empirical Approach”, *Econometrica*, Vol. 67, No. 1, pp. 147-161.
- Keith, K. and A. McWilliams (1999), “The returns to mobility and job search by gende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 pp. 460-70.
- OECD, 「2012 한국경제보고서 (2012 Economic Surveys-Korea)」, 2012 April.
-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 Queneau, H. & Sen, A. (2008), “Evidence on the dynamics of unemployment by gender”, *Applied Economics*, 40:16, 2099-2108.

- Royalty, Abbe Beeson (1998), "Job-to-Job and Job-to-No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Level", *Journal of Labour Economics*, 16:2, April.
- Sahin, A. Song, J. & Hobijn, B. (2010), "The unemployment Gender Gap during the 2007 Recession", *Current Issue in Economics and Finance*, 16:2, Feb. 2010, [www.newyorkfed.org/research/current\\_issues](http://www.newyorkfed.org/research/current_issues)
- Smith, M. (2009), *Gender equality and recession*, Analysis note, 2009, May.
- Verick, S. (2009), "Who is hit hardest during a financial Crisis? The vulnerability of Young men and women to unemployment in an Economic Downturn", IZA Discussion Paper No. 4359. ILO & IZA, Switzerland.
- 日本 總務省 (2010), 「勞動力 調査」.
- 강순희외(1999),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강철희(2004),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반복실업", 『한국노동패널 5차 학술대회 자료집』.
- 김가을(2006),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역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취업·실업·경계노동력·순수비경활상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일(2000), "한계적 경제활동 참가자와 실업", 『한국경제의 분석』, 제6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 김대일(1999),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용현(2005),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류근관·최효미(2005),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1997), "우리나라 실업률 추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기현(2012),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 신동균(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3.
- 안중범·김철희·전승훈(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노동패널 3차 학술대회자료집』.

- 어수봉(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2007),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요인 분석,” 『KDI 경제전망』, 24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 윤희숙(2004),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 장지연·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사회학』 제35집 4호.
- 홍민기(2009), “경기변동과 성별 고용변화,” 『노동리뷰』, 2009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09), “경제위기가 노동이동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2009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11),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황수경·신석하·김인경(2011),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황수경(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황종률(200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부 록

〈부표 1〉 15-29세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100)	추세 ( $\gamma$ *100)	R-sq	DW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100)	추세 ( $\gamma$ *100)	R-sq	DW
취업	7.42 ** (0.19)	0.30 (0.19)	-2.23 ** (0.19)	0.977	1.80	7.48 ** (0.17)	0.31 * (0.17)	-1.76 ** (0.12)	0.974	2.16
실업	6.44 ** (0.68)	-0.99 (0.68)	-2.82 ** (0.50)	0.691	1.96	5.89 ** (1.08)	-0.75 (1.08)	-2.24 ** (0.80)	0.692	2.18
비경활	8.01 ** (0.18)	-0.18 (0.17)	0.68 ** (0.18)	0.964	1.94	8.14 ** (0.17)	-0.22 (0.17)	-0.12 (0.19)	0.894	1.81
완전취업	7.32 ** (0.20)	0.39 ** (0.19)	-2.20 ** (0.19)	0.976	1.83	7.45 ** (0.17)	0.32 * (0.17)	-1.73 ** (0.12)	0.973	2.14
불완전취업	13.46 ** (2.07)	-10.25 ** (2.06)	-7.30 ** (1.37)	0.642	2.07	9.09 ** (2.92)	-6.06 ** (2.91)	-3.67 ** (1.30)	0.621	2.09
실업	6.44 ** (0.68)	-0.99 (0.68)	-2.82 ** (0.50)	0.691	1.96	5.89 ** (1.08)	-0.75 (1.08)	-2.24 ** (0.80)	0.692	2.18
실망실업	2.15 (1.87)	1.12 (1.86)	6.42 ** (1.61)	0.828	1.99	6.99 ** (1.90)	-3.86 ** (1.90)	6.45 ** (1.25)	0.829	2.08
경계근로자	3.59 (2.76)	-1.44 (2.75)	7.41 ** (1.31)	0.601	2.04	9.79 ** (3.88)	-7.55 * (3.87)	5.34 ** (2.26)	0.643	2.08
취업준비자	4.62 ** (0.95)	0.45 (0.94)	1.86 (1.17)	0.942	1.82	4.90 ** (0.90)	0.11 (0.90)	1.70 * (1.02)	0.929	1.90
순수비경활	7.95 ** (0.18)	-0.21 (0.18)	0.55 ** (0.18)	0.940	1.93	8.05 ** (0.19)	-0.21 (0.19)	-0.33 (0.22)	0.921	1.71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부표 2〉 30-39세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취업	8.28 ** (0.06)	0.02 (0.06)	-1.01 ** (0.05)	0.987	1.89	7.33 ** (0.16)	0.37 ** (0.16)	-0.34 ** (0.16)	0.929	2.18
실업	6.56 ** (0.98)	-1.67 * (0.98)	0.45 (0.64)	0.618	2.00	5.15 ** (1.46)	-1.03 (1.45)	0.03 (0.85)	0.384	1.97
비경활	5.57 ** (0.60)	-0.16 (0.60)	3.02 ** (0.41)	0.901	2.04	7.95 ** (0.17)	-0.40 ** (0.17)	-0.97 ** (0.14)	0.942	1.98
완전취업	8.16 ** (0.07)	0.12 (0.07)	-0.91 ** (0.07)	0.981	1.84	7.27 ** (0.16)	0.41 ** (0.16)	-0.24 (0.17)	0.921	2.16
불완전취업	8.05 ** (1.92)	-4.05 ** (1.91)	-3.39 + (2.32)	0.863	2.00	6.21 ** (1.77)	-2.32 (1.76)	-5.92 ** (1.31)	0.846	1.98
실업	6.56 ** (0.98)	-1.67 * (0.98)	0.45 (0.64)	0.618	2.00	5.15 ** (1.46)	-1.03 (1.45)	0.03 (0.85)	0.384	1.97
실망실업	7.83 ** (1.80)	-4.97 ** (1.80)	10.06 ** (1.07)	0.874	1.98	3.23 * (1.96)	0.09 (1.95)	0.62 (1.92)	0.752	2.14
경계근로자	9.30 ** (3.16)	-7.83 ** (3.15)	8.47 ** (1.41)	0.621	1.95	5.78 * (2.96)	-3.54 (2.94)	5.09 ** (2.47)	0.659	2.05
취업준비자	1.26 (1.39)	2.45 * (1.38)	5.69 ** (0.94)	0.870	1.84	5.29 ** (1.99)	-2.35 (1.98)	6.75 ** (1.46)	0.866	2.04
순수비경활	5.24 ** (0.66)	-0.17 (0.66)	0.91 (0.69)	0.616	1.98	7.92 ** (0.18)	-0.39 ** (0.18)	-1.22 ** (0.12)	0.947	2.00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부표 3〉 40-49세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취업	8.23 ** (0.08)	-0.02 (0.08)	0.61 ** (0.07)	0.977	1.80	7.80 ** (0.14)	0.01 (0.14)	0.96 ** (0.13)	0.969	1.57
실업	7.66 ** (1.08)	-3.12 ** (1.08)	0.15 (0.64)	0.553	2.11	4.62 ** (1.34)	-0.74 (1.33)	1.74 * (1.02)	0.576	2.00
비경활	6.44 ** (0.43)	-0.95 ** (0.43)	1.35 ** (0.18)	0.707	1.90	7.57 ** (0.11)	-0.30 ** (0.11)	-0.21 ** (0.05)	0.650	1.94
완전취업	8.01 ** (0.06)	0.17 ** (0.06)	0.82 ** (0.05)	0.972	1.97	7.71 ** (0.15)	0.08 (0.15)	1.02 ** (0.13)	0.969	1.55
불완전취업	8.46 ** (1.94)	-3.92 ** (1.93)	-2.10 (1.80)	0.853	2.00	9.94 ** (1.86)	-5.81 ** (1.86)	-3.64 ** (0.90)	0.796	1.99
실업	7.66 ** (1.08)	-3.12 ** (1.08)	0.15 (0.64)	0.553	2.11	4.62 ** (1.34)	-0.74 (1.33)	1.74 * (1.02)	0.576	2.00
실망실업	5.29 ** (1.92)	-2.12 (1.92)	5.09 ** (1.15)	0.775	2.06	6.30 ** (1.71)	-2.70 (1.70)	2.22 (2.00)	0.854	1.94
경계근로자	6.41 (4.67)	-5.08 (4.65)	10.09 ** (2.73)	0.585	2.16	-3.77 (3.92)	5.66 (3.91)	8.35 ** (2.36)	0.645	2.15
취업준비자	3.23 (2.75)	-1.24 (2.73)	7.52 ** (2.87)	0.765	1.86	8.98 * (4.77)	-8.23 * (4.75)	20.21 ** (3.02)	0.831	1.85
순수비경활	5.94 ** (0.37)	-0.61 * (0.37)	0.22 (0.20)	0.323	1.94	7.48 ** (0.15)	-0.24 (0.15)	-0.50 ** (0.09)	0.836	2.07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부표 4〉 50-64세 회귀분석 결과

	남성					여성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상수항	경기변동 ( $\beta * 100$ )	추세 ( $\gamma * 100$ )	R-sq	DW
취업	7.62 ** (0.08)	0.17 ** (0.08)	5.02 ** (0.13)	0.998	1.88	7.35 ** (0.14)	0.005 (0.14)	5.27 ** (0.19)	0.995	1.75
실업	6.58 ** (1.14)	-2.42 ** (1.14)	5.77 ** (0.56)	0.838	2.10	4.72 ** (1.96)	-1.66 (1.96)	7.69 ** (1.10)	0.710	2.07
비경활	6.92 ** (0.23)	-0.43 * (0.23)	1.35 ** (0.14)	0.846	1.94	7.38 ** (0.16)	0.02 (0.16)	2.83 ** (0.09)	0.981	1.94
완전취업	7.45 ** (0.11)	0.31 ** (0.11)	4.92 ** (0.15)	0.997	1.84	7.29 ** (0.15)	0.04 (0.15)	5.26 ** (0.21)	0.995	1.74
불완전취업	7.77 ** (1.62)	-3.57 ** (1.62)	6.69 ** (1.17)	0.879	1.96	7.48 ** (1.71)	-3.83 ** (1.70)	3.88 ** (0.98)	0.627	1.95
실업	6.58 ** (1.14)	-2.42 ** (1.14)	5.77 ** (0.56)	0.838	2.10	4.72 ** (1.96)	-1.66 (1.96)	7.69 ** (1.10)	0.710	2.07
실망실업	6.89 ** (1.89)	-3.13 * (1.88)	5.40 ** (1.88)	0.915	1.89	6.59 ** (1.96)	-3.35 * (1.94)	6.99 ** (2.38)	0.903	1.96
경계근로자	5.31 (4.31)	-3.91 (4.30)	11.78 ** (3.02)	0.646	1.96	4.46 (4.50)	-3.26 (4.48)	14.40 ** (3.58)	0.727	2.13
취업준비자	0.99 (3.08)	0.34 (3.08)	3.63 * (2.20)	0.395	2.02	-	-	-	-	-
순수비경활	6.66 ** (0.26)	-0.23 (0.26)	0.51 ** (0.16)	0.551	2.02	7.28 ** (0.12)	0.10 (0.12)	2.71 ** (0.06)	0.981	1.93

주: \*\*,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

## **Abstract**

# **Regarding the Unemployment Gap by Gender in Korea**

Young-Ock Kim  
Soo-Kyeong Hwang  
Min-Jung Kang

Unemployment rates increased sharply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1990s in Korea, which activated related researches on unemployment. But there have been few works on gender gaps in unemployment rates, partially because women's unemployment rate continues to be lower than men's rate.

This paper attempts to observe the trend of women's unemployment rate since the year of 2000 and analyse why this gender gap in unemployment rates exists.

The unemployment rate is a measure of underutilized labour supply and can be defined in many ways. ILO defines the unemployed as the persons who are without work, available to work and actively seeking work. This definition tends to underestimate the scale of women unemployed. Many women want to work but do not actively seek work,

thus they are not counted as the unemployed. Korean women are no exceptio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in the official indicator of unemployment rate,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indicator to include time-related underemployed, discouraged workers and other inactives available for work. Official women's unemployment rate was 3.1 percent in 2011, lower than men's 3.6 percent. When applying the new indicator, women's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o 7.4 percent in 2011, which was higher than men's rate (7.2 percent). This new alternative indicator corresponds to the cyclic fluctuations and provides much information about labour underutilization.

Analyzing hazard rates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the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this study confirmed that women tended to exit employment spells to non-employment spells rather than to unemployment spells. When reentering the labor market, women tended to enter the labor market directly without the stage of seeking jobs.

Korea is confronted with a high need to utilize potential labor force fully with low fertility and rapid ageing. This adds one more reason for developing new informative indicator to show labor underutilization. This paper confirms strongly that present official unemployment rate underestimates especially women's underutilization, thus new indicator such as "alternative unemployment rate" which this paper suggested should be developed.

2012 연구보고서-11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2012년 12월 29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486-5 93330

<정가 16,000 원>